

달서문화만개 겨울호 vol. 08 2018. 12

DALSEO 문화 만개

겨울호

vol. 08
2018. 12



Dalseo Culture Foundation

kakaotalk

TALK 웃는얼굴아트센터

이제 카카오톡에서도 웃는얼굴아트센터를 만나보세요
푸짐한 할인혜택과 다양한 이벤트가 친구를 기다립니다

친구추가는 이렇게 하세요!



1. 카카오톡 실행
2. 상단 검색창 터치
3. 검색창에 ID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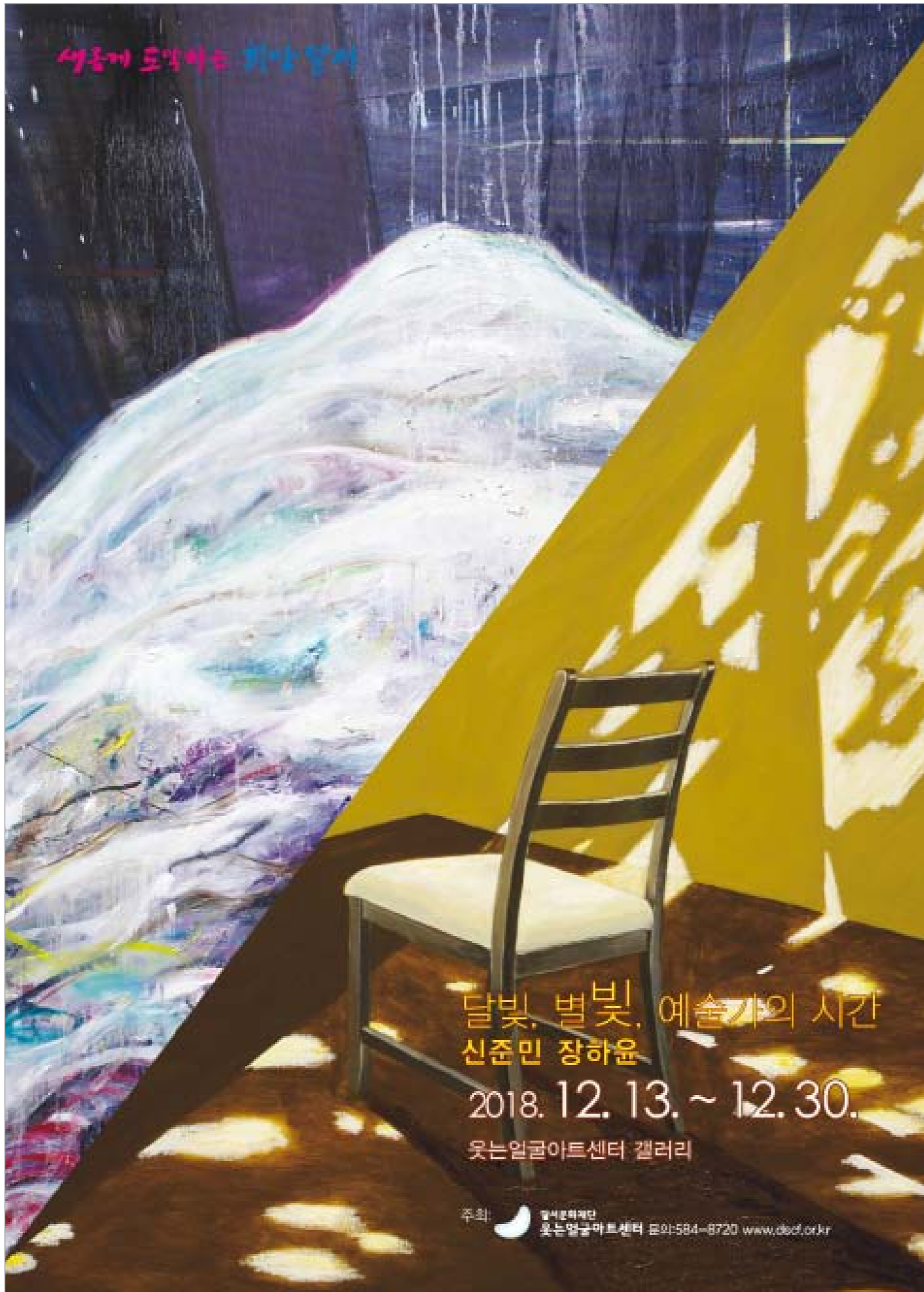


www.dscf.or.kr



달서문화재단
DALSEO CULTURE FOUNDATION

새롭게 도착하는 희망달서



달빛, 별빛, 예술가의 시간
신준민 장하운

2018. 12. 13. ~ 12. 30.

웃는얼굴아트센터 갤러리

주최: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문의: 584-8720 www.dscf.or.kr

2018 희망달서 콘서트 시리즈VI

새롭게 도착하는 희망달서



IMPACT

IMPACT

「임팩트」

LINE UP

수퍼비 · 오르내림 · 팔라 WITH 오사마리
디핵 · 제이키 · A\$\$moker

2018. 12. 21 | 금 | 19:30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주최: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예매 티켓링크 1588-7890 www.ticketlink.co.kr 문의 053-584-8719 www.dscf.or.kr 입장료 전석 40,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문화를 쓰다 6.

- | [인문학] 휴가분의 미학_최재목
- | [문화] 공공 조형물은 생활의 활력소_이성낙

World & Culture 16.

- | [북 코카서스 문화와 예술]
- 북(北)코카서스의 대자연을 만나다
다게스탄 공화국(Republic of Dagestan)_박정곤

목차

Contents

발행처 | (재)달서문화재단 053)684-9711
대구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장기동) 웃는얼굴아트센터 별관 2F
발행인 | 이태훈
발행일 | 2018년 12월 10일
기획/편집 | 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
편집인 | 송국선
편집장 | 김은주
편집위원 | 김미영, 이재근, 허정무, 고재량, 박영빈, 김경영, 김효진, 이현아
편집디자인 | 밝은사람들 053)660-6600

2018년 VOL.8 비매품
ISSN 2384-373X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은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만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로 신청바랍니다.

특집 26.

- | [문학]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불린 마크 트웨인(Mark Twain)_신 영
- | [음악] 열정의 아이콘이자 틀을 깨버린 음악계의 거장 레너드 번스타인_권순헌
- | [미술] '미국의 상징들' 유럽에서 만난 미국미술 :
'미국의 아이콘'전 / '루드비히 고즈 팝'전_김영동

Inside Culture 48.

- | [문화] 무사시노를 걷다_고선윤
- | [영화] 크리스마스 의미 찾기_정찬호
- | [여행] 군산으로 떠나는 특별한 시간여행_권다현

Arts & Artists 62.

- | [전시] 김성수 초대전 <사람을 만나다; 만들다가, 그리다가>
- | [축제] 2018 '희망달서 큰 잔치'
- | [공연] 추억과 낭만이 있는 '7080 낭만콘서트'
달서생활문화센터 '작은 음악회'
- | [아카데미] 예술아카데미 <나도예술가>
- | [특강] 달서가족문화센터
'가족친화·결혼테마 특별 프로그램'



홀가분의 미학

글 최재목

‘청천 하늘의 잔별 =내 가슴속의 수심’

최근 흔들리던 치아 뿌리에 금이 가서 결국 뽑고 말았다. 며칠 동안 우울했다. 나는 그 치아와 함께 했던 아름다웠던 날들을 회상하며, 차츰 나이 들고 서글퍼질 날들을 미리미리 준비해가기로 결심했다. 울적한 마음을 건너기 위해, 전에 읽었던 박경리의 유고시집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를 다시 읽게 되었다. 몇 대목이 머릿속에 산들바람처럼 흘러 들어왔다. 잠시 파문을 일으키다 생각의 하늘 위로 떠올라 선연히 별처럼 박혀 빛났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구절이다.

“속박과 가난의 세월/그렇게도 많은 눈물 흘렸건만/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산다는 것』 일부)¹⁾

그녀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젊은 날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아름다운 청춘이란 다름 아닌 ‘모진 세월’이었다. 『진도아리랑』에서, ‘청천 하늘에/잔별도 많고/요 내 가슴속에/수심도 많다’는 가사처럼, 청천 하늘 잔별이라는 희망은 가슴 속의 수심이 있기에 더 잘 보이는 것 아닌가. 수심이 하나둘 붉을 밝혀 나가서, 저 하늘의 잔별이 되는 것이리라. 내 마음 속이 차츰 저 하늘의 별이 되는 광경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한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 아름답고도 슬픈, 슬프고도 아름다운 마치 동의어 반복 같은 삶의 문법을 박경리는 나이가 들어서 또렷이 보게 된다.

나이 들은 그 자체로 스승이다. ‘늙어서’ 오히려 우리는 ‘편안해지는’ 것이다. 모아 오던 시절에서 버리고 갈 시기로 바뀌기 때 문이다. 소유의 시절에서 존재의 시기로 접어드는 것이다.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자각, 그것은 결국 다 버리고나서 다시 시작하는 자연을 만나는 순간이다. 내 속에서 ‘버리고 갈’ 것을 여실하게 마주할 때, 아니 나머지도 결국 버려야할 타자임을 자각할 때, ‘홀가분’의 미학이 고개를 든다.

“모진 세월 가고/아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옛날의 그 집』 일부.²⁾ 강조는 인용자. 이하 같음)

‘참 홀가분하다’는 말이,
내게로 왔다!

1) 박경리,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마로니에북스, 2012), 13쪽.
2) 위의 책, 16쪽.

이런 '홀가분' 함은 무엇인가? 그녀는 다음 시에서 그 의미를 잘 짚어준다.

“이제 내 인생은 거의 다 가고/감정의 탄력도 느슨해져서/미운 정 고운 정 다 무덤덤하며 가진 것이 많다
하기는 어려우나/빛진 것도 빛 받은 것도 없어 홀가분하고/외로움에도 이력이 나서 견딜만하다”
(「천성」 일부)³⁾

다시 말하면 홀가분이란, (1) 온갖 파란(波瀾)이 다 지나간 뒤의 고요한-잔잔한-평탄한 상태, (2) 감정의 기복이 사라진 이완되어-느긋하고-무덤덤한 상태, (3) 불편-부담-불안이 없는 자족안분(自足安分)의 상태를 말한다. 이것을 극단순화 한다면, '떨쳐버림, 벗어남, 내려놓음'이다.

홀가분① '떨쳐버림, 벗어남, 내려놓음'

이럴 때 나만 남고 나 이외의 군더더기는 다 떨어져 나간다. 비로소 '내가 나다워질 때'이다. 아니 나머지도 저만치 벗어나서 바라만보는 태도이다. '외로움에도 이력이 나서 견딜만하다'는 말은, 외로워하는 '나'를 미리 앞질러가서, 그 위에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홀가분은, 텅으로 걸지거나, 덧붙여지거나, 수식·치장되거나, 붙들리거나, 묶이거나 한 모든 것으로부터 결별하고, '내가 내 존재로 돌아올 때'이다. 이 '나다움'의 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아닐까. 번거로운 일이나 관계를 온전히 '떨쳐버렸을 때', 번잡하거나 꼬인 일들, 답답하게 얽힌 사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 무거운 고민이나 일거리들을 전부 '내려놓았을 때'는, 다름 아닌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속에서 자신의 세계를 갖는 일이었다. '타자,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를 향한 길이다. 그 길은 그 자체로 '고도(孤島)-암실(暗室)'이면서 동시에 '스승-친구(師友)'이다.

“그러나 내 삶이/내 탓만은 아닌 것을 나는 안다/어찌다가 글 쓰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고/고도와도 같고 암실과도 같은 공간/그곳이 길이 되어 주었고/스승이 되어주었고/친구가 되어 나를 지켜주었다”
(「천성」 일부)⁴⁾

결국 혼자 가는 길 아닌가. 사람의 길은 한편으론 은총과 영광의 길이고, 또 한편으론 죄와 고난의 길이다. 그래서 박경리는 말한다. “사람아 사람아/제일 큰 은총 받고도/가장 죄가 많은 사람아”(「넋」 일부)⁵⁾라고. 분명한 것은 죄와 고난이 없다면 은총과 영광의 길도, 거기로 나아갈 근거도 없다는 점이다. '떨쳐버림, 벗어남, 내려놓음'으로 하여, 홀로 있는 방식을 만나고, 그것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3) 위의 책, 33쪽.

4) 위의 책, 33-34쪽.

5) 위의 책, 131쪽.



홀가분② '내가 홀로 존재하는 방식'

최근 간행된 포르투갈 시인 페르난두 페소아(1888-1935)의 시집 『시는 내가 홀로 있는 방식』을 읽었다. 그는 47세에,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작품들이 최근 국내에서 번역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다음 구절에서 나는 큰 울림을 받았다.

“내게는 야망도 욕망도 없다./시인이 되는 건 나의 야망이 아니다./
그건 내가 홀로 있는 방식.”⁶⁾

시인 되는 것, 시를 쓴다는 것은 '내가 홀로 있는 방식'이라. 멋진 말이다. 홀가분도 그런 것이리라. 보들레르의 산문시집 『파리의 우울』 가운데 「새벽 1시에」에서 읽은 구절이 떠오른다.

“마침내! 혼자가 되었군!... 몇 시간 동안 휴식까지는 아니라도 우리는 고요를 갖게 되리라. 마침내! 인면(人面)의 폭력은 사라지고, 이제 나를 괴롭히는 건 나 자신 뿐이리라. 마침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둠의 늪 속에서 휴식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자물쇠를 이중으로 잠그자. 이렇게 자물쇠를 잠가두면, 나의 고독은 더욱 깊어지고, 지금 나를 외부로부터 격리시키는 바리케이드가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다.”

그렇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타자들의 얼굴-인면을 마주 하는 일이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의 얼굴이 폭력처럼 느껴질 때, 겹겹이상자나 목재 러시아 인형 마트로슈카 같은 방구석으로 도망쳐, 이중 삼중의 자물쇠를 채우고 외부와 차단하는 바리케이드를 치고 자신을 퐁퐁 숨기고플 때도 있다. 홀로 있는 방식, 우리 전통에서는 '독락(獨樂)'이다. 독락은 보들레르의 절대 격리와 달리, 세속을 벗어나서 자연 만물을 만나 나를 다시 차원으로 열어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6) 페르난두 페소아, 『시는 내가 홀로 있는 방식』, (민음사, 2018), 11쪽.

홀가분③ '나로서 나답게 살아가기'

헤세가 말한 '데미안'처럼 고난이 닥칠 때마다 가만히 내면으로 향하면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자신(자아), 그 길로 똑 바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래야 내가 나다워진다.

가까운 분이 허리가 안 좋아 온갖 치료를 해보았으나 잘 낫지 않았다. 오래 잊고 지나다가, 최근 그분을 다시 만났다. 엄청 노력을 했던지 아주 건강해져서 깜짝 놀랐다. 이전보다 훨씬 표정도 밝아졌고 몸도 튼튼해져 있었다. 무슨 비결인지 물어보았다. '운동을 꾸준히 한 결과'란다. 그 이후 그의 인생관이 확 바뀌었다고 털어놓았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할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 경쟁할 생각이 없어졌어요!" 자신에게 눈을 돌리고, 자신이 타고난, 잘 할 수 있는 일만 해도 할 게 많고,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즐겁고 편해졌다는 그분의 말이 귀에 잔잔히 남아있다. 그렇다. 원래 남과 경쟁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능력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스피노자가 『에티카』의 마지막 대목에서 말했다.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자신의 '덕성(德性)' 속에 있다"고. 거미가 거미줄을 짜내고, 벌이 집을 짓듯,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고기는 물에서 헤엄치듯, 모두 자신의 덕성이 스스로를 구원받고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덕(德)이란 자는 '곧게 [直]+나아가는[行] 마음[心]'을 뜻한다. 길[道]에 따라 바로 사는 것인데, 원래는 '惠(덕, '곧은[直]+마음[心])' 자였다. 타고난 본성의 길을 따라 왜곡 없이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가장 자신다운 것일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 미국의 철학자 윌 듀런트(Will Durant)는 말한다. "철학은 지혜의 통찰이다. 지혜란 삶의 기술을 가리킨다. 목표는 행복이다. 쾌락이 아니라 덕성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 것이다."(Philosophy is the science of wisdom. Wisdom is the art of living. Happiness is the goal, but virtue, not pleasure, is the road).

동양적 통찰에서는 이런 경지를 '연비어약(鸞飛魚躍)'(『中庸』)이라 했다. '솔개는 날개를 주욱 펴서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물에서 퍼덕퍼덕 튀어 오른다'는 뜻이다. 각기 타고난 본성대로 생명력을 '똑바로' 발휘해 가는 것이다. 감당대로 살며, 생김 꼴대로 값어치를 발휘하는 것이다. 『벽암록』에서, 한 스님이 노파에게 "오대산으로 가는 길이 어느 쪽입니까?"라고 묻자 노파가 "(물어볼 필요 없이) 곧장 가시오(驀直去)"라고 했듯이, 만물은 각기 자신의 본성대로 자신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야' 멋진 법이다. 그 때 자신의 존재를 만나, 자신을 살려낼 수 있다.

최근 장자를 읽다가 '생시어심(生時於心)'을 다시 읽으며 깜짝 놀랐다. 전에는 눈에 잘 띄이지 않던 구절이 번쩍었다. "마음에서 때[時]를 살려내라!"는 한 마디. '때'란 타이밍이다. '천지의 변화에 간극을 두지 말고 늘 함께 있어라'는 메시지이다. 명예욕, 소유욕 같은 욕망을 향해 자신을 묶어두지 않고, 오로지 하루하루 자연, 사물의 움직임과 함께 마음속의 생각, 느낌, 감각, 감정 같은 '자신의 존재'를 그때그때 잘 살려내라는 말이다. 바로 '내가, 나로서, 나답게, 살아가라!'는 말이다.



최재목

- 영남대 철학과 교수, 시인
- 일본 츠크바대학원 석사 및 박사
- 하버드대, 도쿄대, 베이징대, 라이덴대 등에서 연구
- 한국양명학회 회장, 한국일본사상학회 회장 역임
- 저서/동아시아 양명학의 전개, 노자, 동양철학자 유럽을 거닐다 외 다수
- 200여 편의 논문

Public sculpture

공공 조형물은 생활의 활력소

글·자료 이성낙



얼마 전 독일 남부에 위치한 뮌헨(München)을 방문했을 때 초가을의 정취를 '흡입'하듯 즐기며 거리를 거닌 적이 있었다. 독일의 문화 도시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뮌헨을 말이다.

대학 도시 뮌헨의 공기에는 문화의 향기가 짙게 스며있어 많은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특히 '슈바빙(Schwabing)'이란 구역은 예부터 문화인들과의 깊은 인연을 자랑하는 곳이다. 그중엔 독일이 자랑하는 현대문학의 거성 토마스 만(Thomas Mann, 1875~1955)이 자주 들리 지인들과 문학 토론을 했다는 커피숍도 있다. 또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로 유명한 요절 작가 전해린(1934~1965)으로 인해 우리에게 더욱 가까운 곳이기도 하다. 아울러 '슈바빙'은 필자가 학생 시절 그곳에 몰려 있던 '지하 재즈방(Jazzkammer)'을 이곳저곳 순례하며 벚들과 흥을 돋우던 곳이다. 한마디로 문향이 짙게 스며있는 아늑한 장소다.

그런 '슈바빙' 지역을 관통하는 넓은 레오폴트슈트라세(Leopoldstrasse) 양편에 높이 자란 '미루나무(Poplar)' 가로수 거리는 많은 이들의 산책길로 사랑받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랜만에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 산책길을 거닐었다. 그런데 그곳에 엄청 큰 하얀색 거인 조형물이 그 지역을 상징하는 미루나무 사이사이를 활보하고 있었다. 어두운 저녁 시간인데도 그 아름다움에 놀라움과 감탄사가 절로 나와 발걸음을 재촉했다. ①



① 'WALKING MAN' MÜNCHEN의 SCHWABING 거리

조형물 특유의 크기와 선(線)으로 보건대 미국 조각가 조너선 보롭스키(Jonathan Borofsky, 1942~)의 작품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보롭스키의 1995년 작품 '워킹맨(Walking Man)'이었다.

아울러 필자를 감탄케 한 것은 조각가 보롭스키의 다양한 작품 중에서도 '워킹맨'을 선택한 구매자의 눈높이였다. 조형물을 세계적 기업인 '알리안츠(Allianz)' 사옥 앞에 설치했다는 점, 아침저녁으로 수많은 직장인이 분주하게 오가는 길목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 많은 산책객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안겨주는 환경 요소를 절묘하게 배려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환경 조형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브롭스키의 작품은 우리에게도 비교적 친숙하다. 서울 신문로에서 '망치질하는 사람(Hammering Man, 2002).'^②, 과천 현대미술관 초입 들판에서 '노래하는 사람(Singing Man, 1994).'^③, 강서구 화곡동에서 '하늘을 향해 걷는 사람들(Walking To The Sky)'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Hammering Man'
서울 신문로에 서있다.

③ '노래하는 사람(SINGING MAN)'
과천 현대미술관 야외조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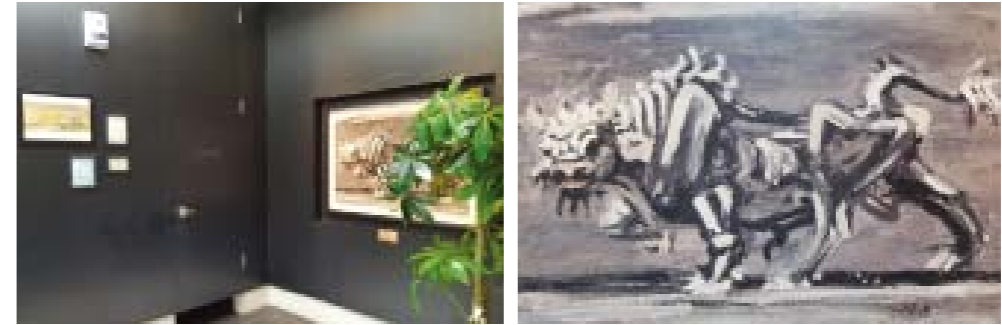
그러한 환경 조형 예술품은 우리의 생활공간을 윤택하게 해주는 문화 영양소다. 그래서 우리 시민에게 '무료'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 소유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이와 반대로 시내에 즐비한 대형 건물마다 건축 시 설치령(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무수히 서 있는 조형물은 대부분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공 흉물 수준의 '작품 비슷한'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대형 조형 예술품을 시민에게 '무료'로 보여주는 작품 소장자들의 또 다른 사회봉사에 한없는 고마운 마음과 경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한편 '문화 소비자'의 입장에서 작은 아쉬움도 있다.

예술 작품은 그 작품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 걸맞은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근래 우리 고속도로 휴게실의 화장실 문화가 얼마나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다. 진심으로 찬사를 보낼 만한 일이며, 우리네 시민정신을 두어 단계 올려놓은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얼마 전 한우(韓牛)의 고장에 위치한 화장실 입구에서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거장 이중섭(李仲燮, 1916~1956)의 '흰소' 복제품을 본 적이 있다. 화가 이중섭은 깡말라 갈비뼈가 앙상한 소를 그리면서 당시 '허덕이던 시대상'을 표현했다. 그러니 그 작품 '흰 소'는 그 지역에서 자랑하고픈 '한우'는 정녕 아니었을 것이다.^{④⑤}



④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려한'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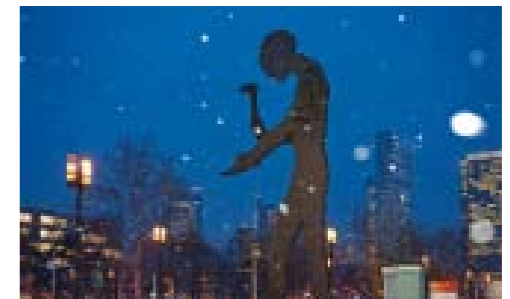
⑤ 화장실에 걸려있는 이중섭작 '흰소'

화장실 입구에서 그 작품을 본 필자는 참담한 심정을 숨길 수 없었다. 실망한 나머지 할 말조차 없었다. 깨끗하다 못해 너무 화려하게 꾸민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의 화장실 공간을 기획한 담당자의 낮은 눈높이를 보는 것은 괴로움 그 자체였다.

설치 조형물은 크기는 물론 작품의 역사성과 공간 사이에 더없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생뚱맞은 장소에서 보는 생뚱맞은 작품은 그야말로 흉물이나 다름없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 설치한 브롭스키의 작품은 주변 환경과 얼마나 잘 어울릴까. 먼저 과천 현대미술관 구역 내에 있는 '노래하는 사람'은 미술관이라는 입지 조건을 생각하면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좋은 예술 작품이 주변의 '눈빨'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서울 한복판 신문로에 우뚝 서 있는 '망치질하는 사람'의 경우는 어떤가. 장소가 협소해 망치질을 하려면 팔을 제대로 힘차게 펼 수도 없어 '살금살금' 쳐야 할 것만 같아 가엾기까지 하다. 23미터 크기의 이 대형 조형물이 훨씬 넓은 공간에서 있다면 더욱 돋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가령 이 조형물이 한강 고수부지 같은 열린 공간에서 있는 것을 상상하면 마음이 확 트인다.^⑥



⑥ 'HAMMERING MAN' IN FRANKFURT

이처럼 도시라는 환경 속에서 공공 조형 예술품이 갖는 순기능을 되돌아보면서 왠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건 비단 필자뿐일까.



이성낙

- 가천대 명예총장, 의·약사평론가회 회장
- (사)현대미술관회 회장, (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 원현의과대 졸업
- 프랑크푸르트대 피부과학 교수, 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
- 문화만개 및 자유칼럼 등 기고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북(北)코카서스의 대자연을 만나다

다게스탄 공화국

Republic of Dagestan

글 · 사진 박정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는 양상한 자작나무 가지에 마지막 잎사귀를 떨어 낼 몸가짐을 하고 있다. 불과 며칠 뒤면 끝없는 황량함에 익숙해질 터라 이 계절에는 광활한 대륙 이 더욱 쓸쓸하다. 이미 시베리아 내륙의 곳곳에선 여기저기 피어난 눈꽃들이 동장군의 기세를 실 감케 하고 있는 반면, 남방의 흑해와 카스피 해 연안은 그야말로 절정의 가을을 보내며 화양연화 의 끝자락을 만끽하고 있다. 이처럼 한 나라 안에서도 계절의 변화가 실로 다채롭다 보니 '세계 최 대 영토 대국'이란 시베리아 맹주의 명성이 허투루 만들어진 건 아닌 듯하다.

극동의 연해주에서 시베리아와 우랄 산맥을 넘어 유럽과 맞닿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 이를 자랑하는 나라 러시아. 그러기에 이곳은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장소들을 가득 품 고 있는데, 특히 코카서스(Caucasus)는 신화의 땅이자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숨겨진 보물과도 같 은 곳이다. 알프스의 몽블랑을 제치고 명색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엘부르스(5642m)와 크고 작은 계곡과 폭포가 장관을 이루는 돔바이, 그리고 푸쉬킨과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와 같은 러 시아 대문호들이 꼭 한 번은 다녀간 문학의 터전 또한 바로 코카서스다. 그 가운데 40여 민족 이상 이 다양한 문화를 간직한 채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이 있으니, 바로 다게스탄 공화국이다. 낮 선 만큼 그 신비감도 더욱 커지는 비밀의 땅, 현자의 땅인 북 코카서스에 자리한 다게스탄 공화국 으로 독자들을 초대해 본다.

솔라크 계곡. 높은 산과 계곡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Makhachkala



18

북(北)코카서스와 다게스탄

최근 관광 분야에서 인기 절정에 달한 코카서스 남부의 조지아, 아르메니아와 달리, 코카서스 북부는 세간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유감스럽게도, 과거의 시간 속 북 코카서스는 민족 간의 다툼과 전쟁으로 점철된 얼룩진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여행을 떠나기에는 부담스러운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아직도 체첸 사태와 같은 세기의 사건들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과거의 역사를 털고 금단의 비밀을 조금씩 드러내 보이기 시작한 공존의 땅 북 코카서스는 러시아 정부 차원의 개발과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토착민들의 의지 덕분에 유럽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들고 있다. 그들 중 **다게스탄 공화국 (Republic of Dagestan)**은 코카서스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발히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다. 고유한 코카서스 비경의 속살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한 다게스탄은 곳곳에 즐비한 천혜의 대자연과 그 속에 자리한 장수 마을, 전통 공예 마을이 한데 어우러져 무궁무진한 신비감을 유감없이 선보인다. 흑해에서 시작하여 카스피 해에 이르는 광대한 산맥을 종단하며 전통의 보전과 변화의 양면 속에 미래를 만들어가는 코카서스인들의 진면목을 탐색하였던 필자에게 다게스탄의 민낯은 더욱 감동으로 다가왔다.

러시아 남부 카스피 해 서쪽 연안에 위치한 다게스탄 공화국은 '산의 나라'란 뜻으로, 1991년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러시아연방의 자치공화국이 되었다. 동쪽으로는 카스피 해와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체첸자치공화국과 러시아의 스타브로폴 지방, 북쪽으로는 칼미크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와 접한다. 지형을 보았을 때, 남부는 높은 산악지대인 반면 북부는 대체로 평원을 이루고 있으며, 국토 전역을 아울러 광천수가 곳곳에서 솟아나고 있다. 다게스탄의 최고봉인 **바자르뒤지**는 높이가 4466미터에 달할 만큼 산세가 험준한데, 이들 고산 아래 흐르는 강과 계곡 또한 그 경치가 실로 장관이다.

흑해와 카스피 해 두 개의 바다 사이에 자리한 광대한 코카서스 산맥, 그 동쪽 끝단에 자리한 다게스탄은 카스피 해에서 불어오는 순풍 덕분에 따뜻한 겨울나기로 유명하다. 한때 호수인지 바다인지 논쟁거리가 되었던 카스피 해는 대양과 동떨어진 거대한 호수이지만 담수가 아닌 소금물로 가득 차 있기에 엄연히 바다라 불린다. 또한 철갑상어를 비롯한 풍족한 어(魚)자원과 석유, 가스 매장량

다게스탄 코카서스 산맥 지역 전경



문화민개

19



데르벤트 요새

이 상당히 인접한 카스피 해 5개국, 다시 말해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 이란, 투르크메노 이곳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놓지 않는다.

다게스탄의 전체 인구는 약 3백만에 달해 코카서스에서는 가장 큰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곳은 7세기에 이슬람 종교를 수용하여 오늘날 코카서스 이슬람 문화의 근간을 닦았으며, 12세기 한때에는 이란과 러시아의 전장이 되어 문화적, 정치적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잦은 침략을 받기도 했는데, 외부 인구의 유입과 민족 간의 혼혼으로 현재는 약 40여개의 민족과 81개의 종족집단이 살고 있다. 가령, 아바르, 다르긴, 레즈긴과 같은 토속 코카서스인과 쿠미크, 나가이와 같은 투르크 계열 민족이 다게스탄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아바르인은 다게스탄에서 가장 큰 민족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종족이 살고 있다 보니 언어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다게스탄은 공식 언어를 러시아어로 하고 있지만, 각개 민족이 가진 여러 토착어도 함께 쓰고 있다.

다게스탄의 수도 **마하치칼라**는 해안에 접해 있으며 인구가 60만 명에 달해 제법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다. 1844년 표트르 1세가 건설한 요새였던 이곳은 한때 '페트로프스크'로 불리었지만 다게스탄의 혁명 지도자 마하츠 다마에를 기념하기 위해 1922년 현재의 지명으로 개칭하였다. 좀 더 설명하자면, 마하츠는 무하마드의 대칭이고 칼라(kala)는 투르크어로 '도시'라는 뜻하므로, 이곳 지명은 '무하마드의 도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거리곳곳의 모스크와 히잡 차림의 지역민들은 이곳이 무슬림의 도시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터미널 옆 활력 넘치는 시장에서는 정겨운 다게스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인심 좋은 상인들의 표정에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이처럼 자그만 지구촌을 이루고 있는 다게스탄에는 수백 만 년 전 인류의 흔적이 발견되는 고대도시들이 즐비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새도시 데르벤트이다.

데르벤트 성벽



고대도시
데르벤트의
줄타기 소녀

Derbent

수도 마하치칼라에서 곧게 뻗은 해안도로를 따라 약 세 시간가량을 달리다 보면 언덕 위 우뚝 솟은 고성이 보인다. 세월의 흔적 속에 군데군데 덧칠이 가해졌지만 얼룩진 성벽 사이로 온전함을 과시하고 있는 흙빛 성벽이 어색하지 않다.

데르벤트(Derbent), 코카서스를 배면에 두고 카스피 해를 품은 고대 도시. 438년 유럽 남서부에서 서남아시아로 가는 이른바 '카스피의 철문'으로 알려진 대상로(隊商路)를 지키기 위해 페르시아인이 세운 요새가 그 기원이다. 데르벤트는 인구 12만의 크지 않은 도시이지만 고대문화에 기원 전 6세기부터 기록되었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다. 고대도시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데르벤트의 요새는 과거 사산 페르시아 제국(Sasanian Persian Empire)의 북쪽 경계였다 한다. 그럼에도 데르벤트는 사산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매우 중요한 곳으로 인식되었는데, 바로 카스피 해안과 산악 사이의 좁고 긴 통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이 고대 도시의 지배자는 중동과 남동부 유럽 사이의 교역로를 장악할 수 있었으며 카스피 해안 지역 전체에서 막강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한다.

728년에 이르러 아랍인이 이곳을 차지하면서 데르벤트는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번영의 시대를 누렸다가 유라시아 전역을 휩쓸었던 몽골의 침략으로 1220년에는 그들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몽골인이 물러간 이후 페르시아를 다시 거쳐 1806년에 이르러 러시아에 합병되었는데, 황제 피터 대제는 이미 오래전 데르벤트를 방문하여 도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남겨두었다 한다. 이처럼 완전히 러시아에 병합되기까지 데르벤트는 수많은 전쟁과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그 본연의 모습을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지켜왔다.



데르벤트 요새 내부



코카서스 전통 의상 축제



22

데르벤트와 첫 대면한 필자의 눈에 비친 요새는 마치 난공불락의 철옹성과도 같았다. 그 벽두께만 하여도 어른의 한 키를 훌쩍 넘기는 곳이 대부분일 정도로 견고한 이곳은 요새 정상에서 해안가까지 길게 이어진 평행한 두 개의 장벽의 길이만으로도 찾아오는 이들을 압도한다. 이 이중 성벽은 전형적인 중세 방어 건축 기술인데, 30개의 위로 솟구친 탑을 가진 20m 높이의 거대 성벽은 페르시아의 왕 코스로 1세(Khosrau I, 재위 531~579)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날까지 성벽과 탑, 성문들은 과거의 견고한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성벽의 요새로서의 역할은 19세기까지 계속되었는데, 이곳은 2003년 유네스코(UNESCO)에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World Heritage Site)으로 지정되었다.

요새를 따라 해변으로 내려와 데르벤트의 인접 마을 '다게스탄키예 아그니'란 곳을 둘러보았다. 바로 전통 줄타기 명인들을 만나보기 위해서이다. 코카서스에서 줄타기의 전통을 가장 오래 지켜 온 다게스탄 지역은 오늘날까지도 명절이 되면 도심 곳곳에서 줄타기를 선보이는 이들로 지나는 이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외줄에 몸을 담고 지상 수십, 수백 미터의 높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선보이는 이들을 이곳에서는 **페흐레반(Pekhlevan)**이라 부른다. 이 마을에는 오랜 페흐레반의 전통을 간직하며 후계자들을 양성하는 전통하는 학교가 있다기에 가장 먼저 찾아가 보았다.

얼핏 보기에 작은 서커스 장을 연상케 하는 학교에는 이제 갓 유치원에 입학했을 법한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수련생들이 있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필자의 눈에는 천장에 매달린 소녀와 외줄에 몸을 싣고 눈을 감은 채 줄을 타는 미래 페흐레반들의 모습이 가히 경이로웠다. 그럼에도 친구와 함께 저글링을 하며 수다를 떨며 즐거워하는 표정에는 아직도 천진난만한 소년 소녀의 티가 다분하다. 통상 이곳의 아이들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경험을 쌓고 전문가로 활동한다는데, 이처럼 줄타기는 오랜 시간 수련을 거쳐야만 습득할 수 있게 될뿐더러 그 과정이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할 만큼 위험으로 가득하다. 아버지 때부터 가업을 이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쿠르바노프 교장 선생님과 지도자들의 눈에도 늘 긴장감이 역력하였는데, 평생 줄타기에 몸을 담은 줄타기 장인의 삶을 들여다보자니 그들의 인생사가 마치 줄 위를 스치듯 지나갔다.

페흐레반을 꿈꾸는 소년



3년째 줄타기를 익히고 있다는 자기타트는 중학교 2학년의 그저 평범한 소녀였다. 친구들과보다 한 뼘이나 키가 작은 그녀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평범하고 소박한 가정에서 묻어나는 풋풋함 뒤로 강인한 인상을 보여주었다. 매일 하루에 수 시간씩 꾸준히 수련을 한다는 그녀는 줄타기 명인이 되어 전 러시아를 따라 순회 공연하는 것이 꿈이라 하였다. 그러나 줄타기의 위험성을 염려한 할머니와 가족들은 그녀가 의대에 진학하여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길 바라고 있었다. 부모라면 누구라도 그럴 법, 자식의 안전이 당연한 터이나 줄타기를 향한 자기타트의 강력한 의지가 꺾이지는 않을 법하다. 가녀린 손목으로 긴 봉을 들고 무게중심을 잡아가며 한발 한발 내딛는 그녀의 표정에는 더없이 큰 행복이 묻어났으며 마치 인생의 머나먼 길에 한걸음씩 다가가듯 조심스레 발을 내딛는 그녀에게 필자 또한 그저 무사 안녕과 성공을 빌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다게스탄의 줄타기 전통이 그녀를 통해 대가 끊이지 않기를 빌며 양탄자 마을 '타바사란(Tabasaran)'으로 발길을 돌렸다.

코카서스 양탄자
역사의 보고
타바사란
(Tabasaran) 마을
- 양탄자 장인

요술 램프를 꼭 쥐어 든 알라딘이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던 교통수단으로서, 혹은 만화 주인공 신드바드가 머나먼 모험을 떠나며 늘 낙타 등에 올리고 다니며 이동식 침대로 썼던 양탄자. 필자의 추억 속 양탄자는 일상 현실과는 그다지 가깝지 않았기에 지난 과거의 동화 속 추억을 떠올려본다. 우리에게 양탄자는 생활 속 필수품이 아닌 다소 낯선 문화로 인식되지만 아랍 지역과 중앙아시아에서는 주요 산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코카서스의 양탄자도 이에 뒤짐이 없다. 특히 이곳 다게스탄 양탄자는 헤르도투스 시대부터 알려졌다. 그만큼 역사가 깊다. 인접한 페르시아 국가인 이란으로부터 양탄자 문화가 유입되었다는 설도 있으며 실크로드가 코카서스를 지나며 이곳으로 들어왔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다게스탄의 양탄자는 뉴욕과 파리 박물관에도 전시되었을 만큼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문화에 접근할 때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문화적 보고로 인식되고 있다.



타바사란 지역 양탄자



24

Tabasaran



타바사란 여인과 양탄자

통상 양탄자는 아랍의 시르반(Shirvan) 왕국에서 유래하였다 전해진다. 인접한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한때 양탄자는 하나의 <문화적 코드>로서 이름을 날렸는데, 아담의 첫 아들인 선지자 셸이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후 낙타털을 가지고 만들었다 전해질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슬람 국가인 이곳 다게스탄에서도 양탄자는 기도를 올릴 때 필수품으로 여겨지는데 그만큼 신성하고 귀중한 물건으로 취급 받는다. 다게스탄에서도 특히 타바사란(Tabasaran) 지역의 양탄자는 기하학적 무늬가 많고 그 밀도가 촘촘하여 소비에트 시절 가장 질 좋은 양탄자로 각광을 받았다. 힘찬 색조와 대담한 직선은 다채로운 문양과 어우러져 고유 아름다움을 자아내며, 지인들에게 선물할 때 선물 받는 당사자의 이름을 새겨 넣거나 곰과 늑대, 독수리와 같이 코카서스를 상징하는 형상을 수놓는 것도 아라비아 혹은 중앙아시아의 그것과 대별되는 부분이다.

이곳에서 양탄자를 만드는 일은 대표적인 여성의 일이다. 이곳 여인들은 아침이 되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식구들의 끼니를 챙기고 또 집안일과 가족들을 돌보다, 그리고는 잠시의 쉼도 없이 양탄자 베틀에 걸쳐 앉는다. 누구 하나 강요하는 이도 없지만 여인들은 베틀에 집중하며 한 올 한 올 정성을 아끼지 않는다. 완성된 양탄자를 얻기 위해 타바사란의 여인들은 통상 수개월에 걸쳐 구슬땀을 흘리지만 그럼에도 공들이는 시간과 흘린 땀에 비해 가격은 미안할 정도로 너무나 저렴하다. 청정한 대자연에서 양을 키워 양털을 수확하고 실을 뽑고, 염색과 베틀 짜기, 세척 과정까지 아낙네들은 타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하는데, 여기에 보태어진 그들의 장인정신은 한 장의 양탄자를 훌륭한 작품으로 태어나게 만든다. 그러다 보니 타바사란 여인들이 가진 양탄자에 대한 자부심은 실로 대단하다. 이란 등지에서 생산되는 페르시아 카펫보다 디자인과 품질이 월등할 뿐만 아니라 코카서스에 만개한 꽃과 들꽃에서 얻은 천연 염료는 가히 따라 하기 힘든 고유한 빛깔을 빚어낸다. 과거에는 타바사란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카펫을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마을의 몇몇 가구에서만 전통을 잇고 있으며 그마저도 젊은이들이 부족해 대물림을 해나갈 여유가 없어졌다. 젊은이들이 사라진 시골마을의 쓸쓸함이야 어디에도 비할 바 없지만 그럼에도 베틀을 쉼 없이 돌리고 있는 타바사란 여인들이 오늘을 지키고 있기에 타바사란 양탄자의 맥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멀리 베틀 소리를 등 뒤로 하고 필자는 타바사란의 돌계단을 조심스레 디디며 집으로 향했다.

박정곤

- 고려기 문학대학교 한러문화연구원 원장
- 고려기 문학대학교 초빙 연구교수
- 러시아 지역 전문가/극지방 문화 연구자
- EBS <세계 테마기행> 러시아 큐레이터

타바사란으로 가는 계곡



문화민개

Mark Twain Leonard Bernstein Pop Art

글 김은주(편집자)

#

하와이 코나커피, 러일전쟁 종군기자, 세계여행, 모리셔스, 반전 반체제 ... 다양한 키워드의 주인공, 마크 트웨인(Mark Twain) 그는 인쇄소 견습공, 수로안내인, 광산 기사, 신문기자, 사업가, 발명가, 강연가 등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며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지요. 그의 일생은 무모할 정도로 도전과 실패를 거듭했지만, 늘 꿈과 희망을 놓지 않았다. 소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19세기 미국인의 삶과 어두운 현실을 유쾌하게 녹여낸 그의 소설, '톰 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회자되어 오고 있다. 생명력이 넘치는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의 이야기는 19세기를 지나 21세기를 넘어서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환갑의 나이, 경제적인 파탄과 쇠약해진 건강에도 불구하고 증기선을 타고 세계여행과 강연을 감행했고, 낭만과 모험 가득 담긴 그의 여행기 '마크 트웨인의 19세기 세계일주'를 남겼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유머와 풍자로 표현한 소설가였고, 꿈꾸는 여행자, 지혜로운 비평가였다.

#

마에스트로, 피아니스트, 작곡자, 방송인, 반전운동, 인권운동 ... 이 키워드의 주인공,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은 클래식과 뮤지컬, 재즈의 장르를 넘나든 20세기 미국 음악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리지요. 그는 피아니스트로, 지휘자로, 작곡자로, 방송인으로 20세기 클래식계를 이끌어가던 세계적인 음악가였다. 음악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권운동, 반전운동도 적극 감내해 출국금지가 되기도 했지만, 엄숙주의에서 벗어나 대중의 눈높이에서 펼친 탁월한 해석과 열정적인 지휘로 인해 '진정한 마에스트로', '소통하는 마에스트로'로 재조명되고 있는 불멸의 거장이다. 번스타인은 음악의 다양한 주제들을 특유의 통찰력으로 풀어내어 젊은이들에게 전하고자 했으며, 그 통찰력이 담긴 '상상의 대화'를 '음악의 즐거움'이란 책으로 고스란히 담아냈다.

여기는 바닷가 조용한 카페,

여행 중인 마크 트웨인과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다 유쾌하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Mark Twain

"자, 20년 후를 상상해볼까요?"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실망할 것입니다.

뚝 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십시오.

당신의 뜻에 무역풍을 가득 담아, 탐험하고, 꿈꾸고, 발견하는 일, 신나지 않나요?"

* 마크 트웨인의 명언에서 발췌해서 꾸민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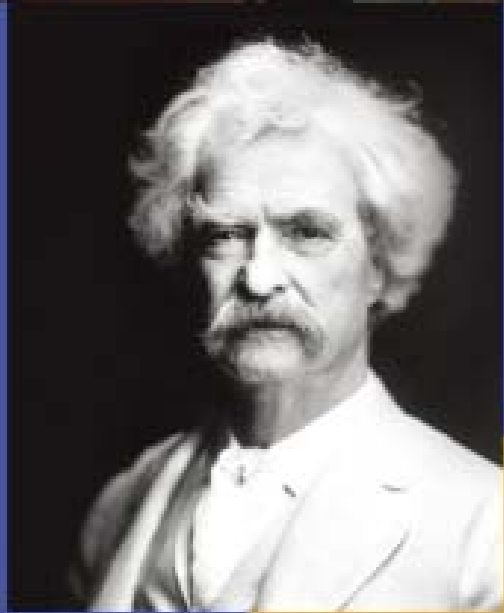
이번 겨울호는 영원한 톰 소여,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와 함께 20세기 음악계의 아이콘 중 한 사람인 레너드 번스타인의 음악인생과 세상을 거대한 회화로 보고 대중예술의 차원을 높인 팝아트의 세계 등 미국의 근현대 문화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28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불린

마크 트웨인

글·사진 신영

Mark Twain

Missouri Hannibal



#3 특집 | 문학

29

DALSEO CULTURE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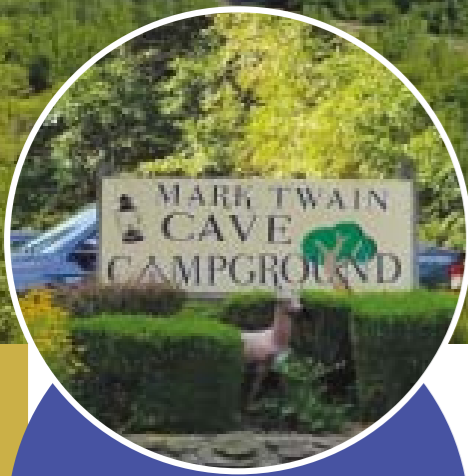
마크 트웨인(Mark Twain)을 말하려면,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 읽어보았던 <톰 소여 모험(The Adventures of Tom Sawyer)>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이 먼저 떠오른다. 톰과 헉을 통해 우리는 그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 동북부에 살면서 중부 지방의 문학 기행을 두 차례 다녀오게 되었다. 그 후 다시 한 번 마크 트웨인을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마크 트웨인의 본명은 사무엘 랭혼 클레멘스이다. 필명 '마크 트웨인(Mark Twain)'은 뱃사람들의 용어로 '두 길(한 길은 6피트)'이라는 의미로, 깊이가 두 길이라 가까스로 항해할 수 있는 강을 뜻한다. 마크 트웨인이 소년기를 보낸 곳은 미시시피 강을 끼고 있는 미주리(Missouri)주 한니발(Hannibal). 그 곳엔 온 사방에 마크 트웨인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그가 청소년기를 보낸 생가와 박물관에는 늘 방문객들로 북적거린다.

마크 트웨인은 1835년 11월 30일에 미주리 주 플로리다의 가난한 개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흑인 노예 학대나 백인 개척민들의 거친 언동을 보고 자랐다. 생활은 가난하기 그지없었으며, 아버지 존 마셜 클레멘스는 가족에의 애정도, 삶에 대한 의욕도 그저 그런 낙오자였다고 한다. 그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12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학교를 중퇴하고 인쇄소에 견습공으로 들어갔다.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인생의 고뇌에 시달리던 나태하고 신경질적인 남자아이였는데, 마을의 비슷한 청년들과 어울리며 갖은 탈선행위를 하고 다녔다고 한다.

문화만개

견습공 생활을 할 당시 마크 트웨인은 지방 신문사에서 인쇄 식자 공으로 일했는데, 틈틈이 신문기자 일을 배우고 유머 콩트를 써서 신문에 게재하곤 했다. 정식 인쇄공이 된 후에는 뉴욕,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 키오쿡 등 각지를 전전하며 살다가 22세 때부터 미시시피 강의 수로 안내인으로 일했다. 어린 시절 뛰어 놀았던 미시시피 강 수로 안내인이 된 건 어쩌면 운명이었으리라. 그리고 서부의 금광 개발 광부로 일을 하다가 거쳐 신문사에 글을 기고하면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필명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쌓은 수많은 경험들은 후일 그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그의 대표적인 《톰 소여의 모험(The Adventures of Tom Sawyer)》(1876)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1884)은 어린 시절과 청년기에 미시시피 강에서의 경험이 이후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마크 트웨인의 어머니는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누구에게나 친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참지 않고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런 영향을 받은 마크 트웨인은 이후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노예제도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작품에 담았으며, 사회 비판적인 글을 쓸 때도 풍자에 유쾌함을 담아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New York
Philadelphia
Saint Lewis
Keokuk*

Mississippi

1861년, 남북전쟁이 터져 수로 안내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는 잠시 남부군에 들어갔다가 형을 따라 네바다 주로 가서 채굴장에서 광부로 일을 하고는, 버지니아 주로 가서 지방지의 의회 취재 기자로도 활동했다. 이 무렵 마크 트웨인이라는 필명으로 기사를 작성했으며, 광산 지역 노동자들의 입담과 거친 삶을 관찰하여 만담을 쓰고, 만담 강연을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금광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샌프란시스코로 갔다가 허탕을 치고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다시 여행 기자로 활동했다.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마크 트웨인의 유년기는 미국의 노예제도가 있던 시기였다. 그래서 그의 집에도 '샌디'라는 어린 흑인 노예가 있었다. 그런데 샌디는 일하면서도 늘 노래를 부르고 휘파람을 불며 잠시도 입을 쉬지를 않았다고 한다. 그런 샌디에게 시끄럽다고 불평하는 자신에게 어머니는 이런 말을 들려 주었다.

“그 아이는 다시는 어머니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할 거야. 그 아이가 노래하지 않으면 엄마와 친구들 생각을 이겨낼 수 있겠니? 나는 오히려 샌디가 조용히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걱정스럽고 마음이 아프단다. 네가 나이 들면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거야.”

Mark Twain

툼 소녀의 담장



후에 마크 트웨인은 그날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마음 깊이 남아 평생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허클베리 핀의 모험(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1884)에 그 영향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작품의 주인공인 백인 소년 '헉(허클베리 핀)'은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도망치다 우연히 흑인 노예인 '짐'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뗏목을 타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고, 여행 도중에 도망 노예인 짐을 보호하기 위해 헉은 갖가지 위험과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마크 트웨인은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글쓰기와 독서를 좋아했다. 인쇄공으로 일하면서 동네 도서관에 다니며 폭넓은 지식을 쌓았다.

마크 트웨인의 작품들과 마주하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톰의 '담장 칠하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꼈는가? 그것은 노동이란 누구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놀이란 의무적이진 않지만 누구나 좋아하는 것인데 톰은 '담장 칠하기'를 통해 노동을 놀이로 만들었다. 또 허클베리와 톰은 공동 묘지에서 살인 사건을 목격한다. 진범이 아닌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지만 두려움에 그들 둘은 입을 다물기로 약속한다. 하지만 결국 톰은 법정에서 진범을 이야기한다. 요즘 사람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양심, 동정심, 용기 등을 톰을 통해 마크 트웨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또한, 톰과 허클베리 핀은 인전 조가 감추어둔 보물을 찾아내 부자가 된다. 그리고 헉은 더글라스 과부 덕의 보호를 받으며 다른 아이들과 같은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자유로운 부랑자의 삶을 살았던 허클베리 핀에게는 고통스러울 뿐이었다. 잠시 생각과 생각을 마주해본다. 우리는 보편적인 잣대를 놓고 그것에 맞춰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며, 알게 모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고정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다. 마크 트웨인의 작품 《툼 소녀의 모험(The Adventures of Tom Sawyer)》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을 통해 만나는 이야기들은 조금은 당황스러우면서도 자유분방하지만, 그 자유분방함 속에서도 지켜나가야 할 질서를 만나게 된다.

윌리엄 포크너는 마크 트웨인(Mark Twain)을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칭했으며,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미국 의 모든 현대 문학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했다. 마크 트웨인은 현실적이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미국 사회의 부조리를 생생하게 묘사하며 미국 문학사에 큰 획을 그었다. 그는 미국 문학의 전통을 창조한 작가, 심리적, 문화적, 영적 측면에서 미국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가로 일컬어진다. 소위 미시시피 3부작으로 일컬어지는 《툼 소녀의 모험》, 《미시시피 강의 생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가장 미국적인 서사시로 불리며, 19세기 미국 문학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 마크 트웨인이 만들어 낸 톰과 헉의 이야기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한다.



신영
- 재미 시인 · 수필가

열정의 아이콘
틀을 깨버린 음악계의 거장

레너드 번스타인

Leonard Bernstein

글 · 자료 권순훤



오래간만에 아주 특별한 음악인을 소개하려합니다.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지휘자인 '레너드 번스타인'입니다. 올 2018년은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으로 음악계 여기저기서 그의 천재성과 인간미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는 지휘자이자 작곡가,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으며 방송과 뮤지컬까지 활동범위를 넓혔고, 참여하는 분야마다 커다란 업적을 남겼기에 정확히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결혼식 날에도 동료들과 음악작업을 하다가 "저 결혼 좀 하고 올게요"라고 말하곤 결혼식을 올리고 다시 돌아와서 작업을 한 일화는 예전에 한 라디오 광고에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작곡가라고 하면 전업 작곡가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아니스트가 작곡을 하는 일도 흔치 않습니다. 게다가 지휘자로서도 엄청난 커리어를 자랑하며 교향곡은 물론 해설이 있는 음악회, 뮤지컬까지 온갖 장르를 다 헤집고 다닌 그였기에 말 못할 고민도 있었습니다. 주위로부터 많은 질투를 받았던 것이지요... 탕글우드 페스티벌에서 그는 "지휘자들은 나를 지휘자로 생각하지 않고, 작곡가들 역시 나를 작곡가라고 인정하지 않고, 피아니스트들은 나를 피아니스트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푸념을 하기도 했지요... 너무나도 다방면에서 뛰어난 천재였던 나머지 동시대를 살아갔던 음악가들의 입장에서 그의 다재다능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지요.



Leonard Bernste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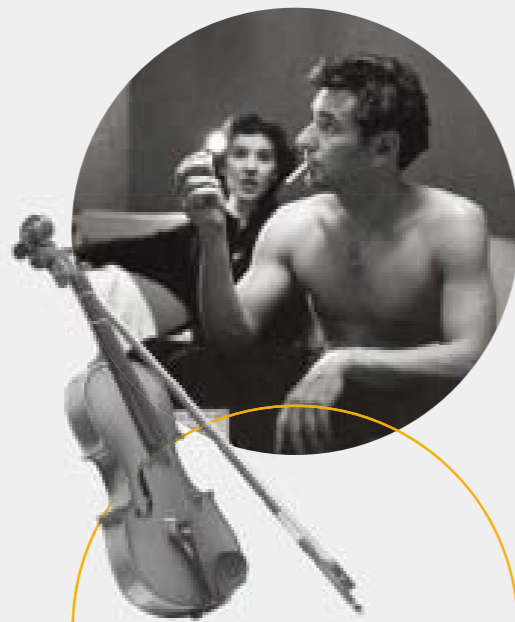
옴니버스를 촬영 중인 번스타인 (출처 dvdtalk.com)

어린 시절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난 번스타인은 음악 공부를 반대한 아버지와 마찰이 심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라 최고 명문인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서도 뒤에서는 음악을 계속 했고, 1939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최고 명문음대인 커티스에 진학합니다. 이쯤 되자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지요? 아버지도 그의 뜻을 인정하곤 번스타인은 결국 음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곤 뉴욕필의 부지휘자로 근무하던 당시 음악감독이던 '브루노 발터'의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취소될 뻔 한 공연을 리허설도 없이 대타로 투입되어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치고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이 사건은 일간지 1면에 대서특필되고 '망명한 유럽출신이 아닌,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공부한 젊은 거장'이라는 평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곤 2년 뒤엔 뉴욕시 교향악단(뉴욕필하모닉과 다른 교향악단입니다.)의 지휘자로 부임하여 젊은 지휘자답게 당대의 현대곡 등 다양한 선곡으로 진보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정말 운도 따랐다고 생각되지만, 결국 "기회는 모두에게 오지만 그것을 잡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후 30대 후반의 나이가 된 번스타인은 방송계에 진출합니다. 1954년 CBS의 '옴니버스'라는 음악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직접 방송 대본까지 관여했고, 잘 생긴 얼굴에 화려한 쇼맨십, '동부역양의 좋은 목소리'를 지닌 젊은 지휘자에게 대중들은 열광했고 2년 뒤엔 미국 최고의 오케스트라인 뉴욕필하모닉의 지휘자에 취임하게 됩니다.

1951년 3월 이스라엘필 공연을 마치고 난 뒤의 번스타인 (카네기홀 공연, 출처 구글이미지)



카우보이, 펭귄 등 다양한 별명을 가진 그는 별명처럼 들쭉거리고 때로는 포디움에서 튀어 오르기도 하는 등 과격한 스타일의 지휘로 보수적인 클래식계에선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청중들은 오히려 그러한 지휘에 열광했습니다. 저 역시도 가르치고 있는 교양학부에서 음악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러한 독특한 지휘를 더 재미있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번스타인 - 진노의 날(Bernstein - Dies irae)을 검색해보면 그의 지휘스타일의 특이점을 볼 수 있는데 정말 화려하고 빠르며 오케스트라를 향해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필쩍 뛰기도 하는 등 힘이 넘쳐납니다. 같은 곡을 다른 지휘자가 지휘한 영상을 보면 더욱 더 극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확보한 입장에서 번스타인은 더욱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범위를 확장하는데요? 그건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입니다. 직접 만든 뮤지컬을 무대에 올려 소위 '초대박'을 치면서 그의 위상은 더욱 더 공고해집니다. 또한 달변가적인 기질과 멋진 외모로 그가 해설을 맡아 진행한 '청소년 음악회'는 영상으로 녹화되어 청소년을 위한 음악 해설의 교본처럼 전 세계로 수출되었고, 우리나라 교육방송 EBS에서도 방영되었습니다.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한 장면 (출처 구글이미지)



엄청난 열정으로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클래식 음악가가 뮤지컬을 작곡하고, 방송에 출연하여 입담을 과시하는 등의 활동들은 보수적인 클래식 음악계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지만, 이미 그는 그런 질서를 신경 쓸 필요조차 없는 거장의 반열에 올라서는 중이었습니다. 또한 진보적인 언행과 사회적인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는데요? 흑인인권운동에 가담하여 마틴 루터 킹 목사와 앨라배마에서 열린 '셀마 대행진'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음악가로서 쉽지 않은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 미국의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핵무기를 비판하는 등 거침없는 언행으로 주위를 놀라게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는 '다수파'가 아니라 '소수파'였지만, 평범한 일반인이 아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강한 소수파'로 각인되어 뉴욕 필 오케스트라에서 해임되거나 해외 출국이 금지되는 등 정치적인 압력과 감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학 동창인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이후 해금이 되어 연주 활동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후 1970년대엔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으로 진출하여 다양한 음반을 녹음하는 한편 여 기사도 그의 끼는 사라지지 않아서 아카펠라, 록밴드음악과 재즈를 융합한 '미사'를 발표하면서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시기에도 냉전에 반대하며 정치적인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에 1978년 내한공연을 했을 때 주최 측에서 러시아 출신인 쇼스타 코비치의 음악을 프로그램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예정대로 연주해버렸고, 그것이 한국에서는 초연(처음 연주됨)이었습니다.

다분히 보수적인 분위기의 클래식 음악계에서 이것이 과연 한 사람이 다 해낸 일인가? 라는 물 음이 들 정도로 본업인 지휘 외에도 다양한 교향곡, 뮤지컬을 작곡하고 저서까지 집필함은 물론, 많은 사회활동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을 심어준 번스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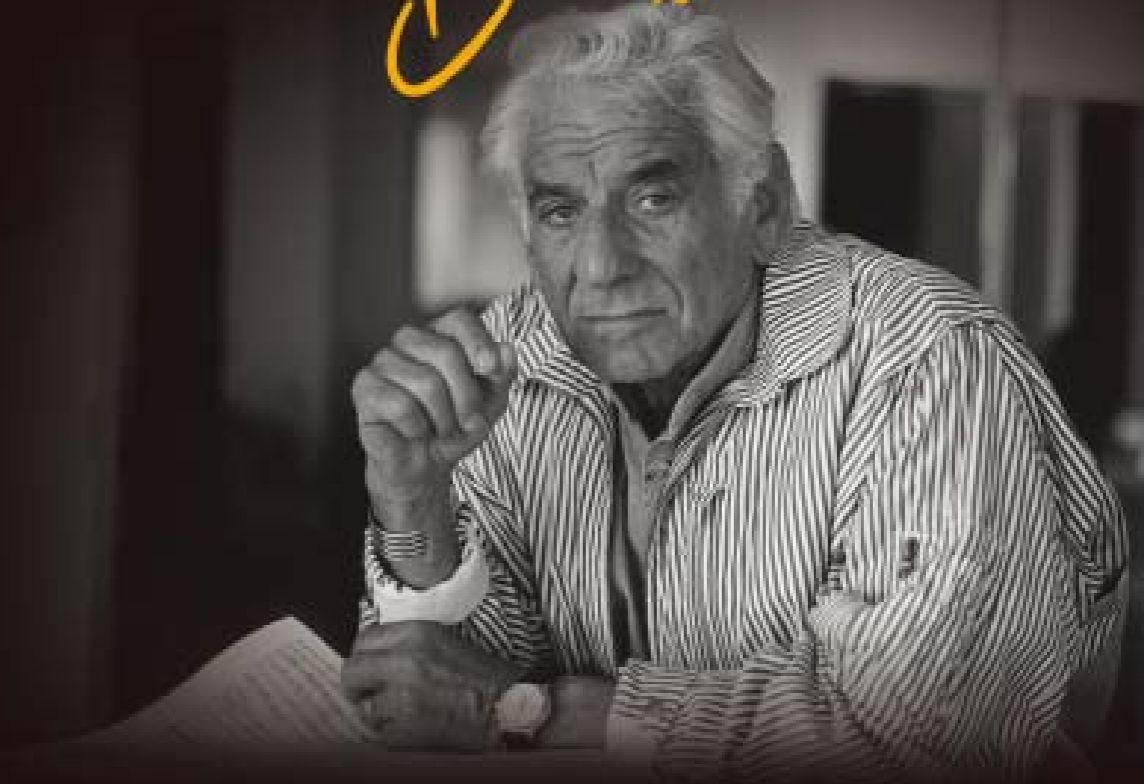
그가 한 말 중 유명한 소절을 하나 소개합니다.

66 *Music can name the unnamable*
and communicate the unknowable 99

“음악은 이름 지을 수 없는 것들을 이름 짓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전달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그토록 음악을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한 것이 아니 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50대의 나이에 베토벤은 수없이 많은 명곡을 남겼지만, 정 작 자신은 남긴 명곡이 없다며 괴로워했다는데요? 그것은 시간이 더 흐른 뒤 후대에서 평가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작 살아있을 때 번스타인은 뮤지컬과 방송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정통클래식만을 연주했던 독일의 대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보다 한 수 아래의 지휘자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은 둘을 20세기 최고의 라이벌 로 묘사하는 수많은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 시간이 흐른 뒤엔 어떻게 평가가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겠지요. 단원들과 소통하는 지휘자로, 더 나아가 사회와 소통하는 행동 하는 지식인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클래식 음악가는 클래식 음악만 해야 한다는 고 정관념을 깨버린 번스타인... 그가 있었기에 지금 수많은 클래식 음악가들이 다양한 장르의 예 술가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Leonard
Bernste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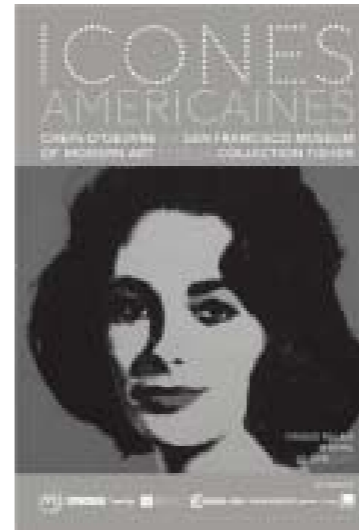
권순원

- 피아니스트
- 서울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 40여장의 클래식 앨범 발매, 60여장의 음반 프로듀서로 활약
- '나는 클림트를 보면 베토벤이 들린다' 출간 등 활발한 음반작업, 저술활동
- 이지클래식, 미술관에 간 피아니스트, 체르니 콘서트 등 참신한 공연으로 매진 및 호평
- 현재 서울종합예술학교 겸임교수, 네오 뮤지카 대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대륙은 파괴적인 전쟁의 후유증을 심하게 앓아야 했지만 대양 건너 미국은 지리적인 이유로 국토에 직접적인 전화는 입지 않은 채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었다. 전후 복구의 국제관계를 주도하며 새롭게 구축된 동서 냉전체제의 한 중주국으로서 세계최강 국가의 지위에 올라선 미국은 정치 경제는 물론 문화도 미국이 선도하는 가운데 미술 중심 역시 뉴욕이 지난 세기 파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전후 자신들이 입은 내상과 상흔을 표출한 유럽의 앵포르멜 미술가들과 달리 미국은 유럽 모더니즘의 추상주의 전통과 초현실주의에 기저를 둔 추상표현주의를 발전시켰다.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될 이 양식의 성장은 미국미술의 전설을 쓴 잭슨 폴록으로부터 뒤에 뉴욕파로 불리게 되는 일단의 페인팅 화가들에 의해 확장과 확산을 거듭했다. 경제부흥과 궤를 같이 한 이 미국미술은 자유진영 즉 서방세계의 이데올로기적인 국면에서까지 커다란 상징이 되어왔다.

‘미국의 아이콘’전 (파리 Grand Palais)



먼저 ‘아메리칸 아이콘스’ 전시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의 컬렉션과 동 미술관이 관리하는 도널드 피셔의 컬렉션에서 선별해 가져온 것인데 그곳의 대표작들을 파리를 다시 보는 감회가 새로웠다. 더욱이 두 도시는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밀접한 인연이 있다.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은 확장공사에 들어가 재개관까지 몇 년간 휴관상태인 관계로 아마도 유럽순회 투어 전을 기획한 듯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모더니즘미술과 컨템퍼러리 중심의 ‘SFMOMA’라고 불리는 이 미술관 외에도 고전미술 컬렉션을 전시하는 ‘레 중 도뇌르’와 종합적인 ‘de YOUNG 미술관’ 그리고 인근에 버클리 와 스탠포드 대학미술관 등이 있다.

먼저 이 순회전시를 맞이하는 파리 관객들의 반응이 궁금했는데 전시를 홍보하는 각종 포스터에 실린 글귀가 눈길을 끌었다.

파리 시민들이 대양을 건너 아메리카까지 가지 않고서도 전설적인 미국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직접 보게 될 것이란 광고였다. 얼핏 생각하면 동시대 유럽미술이나 미국미술이 우리에게 지리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다 같은 서양미술일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그래도 차이가 있다는 표현이다. 또 다른 의미로 유럽은 한국과 달리 전후 미국 현대미술에 대한 편향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음이 그 말의 뉘앙스에서 분명히 느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운동 초기에는 유럽 특히 프랑스 작가들이 주도한 앵포르멜 미술 사상이 강하게 있었는데 곧 미국미술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 버렸다. 유럽의 앵포르멜 대신 미국의 추상표현주의로 그리고 뒤이어 일어난 팝아트도 사회비판적 개념이 강한 영국작가들보다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일방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밖에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등의 경우도 유럽은 미국과의 영향관계 속에서도 자기들 나름의 흐름을 유지해가지만 한국의 경우 완전히 미국미술 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냈지 않았나 싶다.

그런 관점에서 이 전시는 미국미술의 특징과 에센스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타이틀에서 내세운 바와 같이 미국의 아이콘이라 불릴만한 작가들의 작품들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20세기 세계미술의 흐름을 미국 주도로 바꾼 현대미술의 거장들로 꾸며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런 시각은 미국 쪽의 주장이거나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일방적인 평가였을 수 있다. 여하튼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이 주최가 되어 20세기 미국미술가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가들로 간주된 14명을 골라 그들의 독자성에 초점을 맞춰 미국미술의 특성을 보여주려고 한 만큼 이 전시를 통해 미국미술의 정체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겠다. 작품은 모두 60여점으로 전후미술 일부와 196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들이었다.

‘미국의 상징들’ 유럽에서 만난 미국미술 :

- | ‘미국의 아이콘’전 (파리 Grand Palais)
- | ‘루드비히 고즈 팝’전 (비엔나 MUMOK)

글 · 사진 김영동



Grand Palais

미국의 유명미술관들은 물론 주마다 있는 거의 모든 미술관들에서 가장 쉽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바로 미국추상표현주의 작가들과 이들에 뒤이어 미국의 경제발전과 소비사회에 예술적으로 반응한 미국 팝아트 작가들의 미술일 것이다. 근래 유럽 미술관 쪽을 자주 찾다보니 미국 미술관들을 둘러본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그런 중에 유럽에서 미국미술전을 만나 관람하게 된 경우가 몇 번 있었다. 얼마 전 파리 그랑팔레(Grand Palais)의 사우드웨스트 갤러리에서 ‘아메리칸 아이콘스’전과 비엔나 무목(MUMOK)에서 열렸던 ‘루드비히 고즈 팝’이란 두 전시회가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다. 모두 전후 및 1960년대 이후 만들어진 미국미술들을 유럽에 소개하는 전시회로서 미국 현지 미술관서 볼 때와는 또 다른 감흥과 이해로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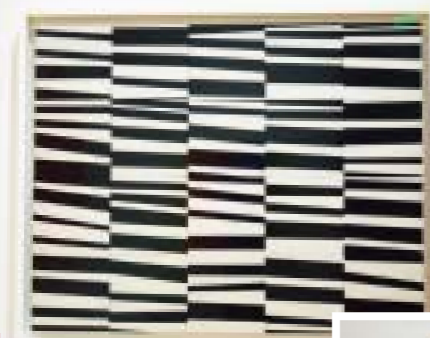
파리의 그랑 팔레는 마주한 프티 팔레와 더불어 여러 개의 전시실을 가지고 있어 각종 기획전시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중요한 미술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그랑 팔레 내에서도 사우드웨스트 갤러리에 마련된 이 전시회는 가장 첫머리에 알렉산더 칼더의 모빌 작품을 천정과 벽면 등에 설치하여 관객을 맞았다. 미국 출신 이면서 일찍이 파리의 아방가르드 미술가들과 함께 활동했던 경력을 가진 그의 조각은 스틸을 재료로 하면서 기존 조각의 관례에서 벗어나 움직임과 칼라를 더한 형태로 독창성을 발휘했다. 전시장 구성면에서도 그의 조각을 앞세운 것은 미국추상의 전개를 알리는 데 적절한 선택이었다. 그의 1953년 조각 <18개의 블랙(Eighteen Numbered Black)>과 1951년 작 <Tower with Painting>으로 시작해서 엘즈워스 켈리의 추상으로 도입부를 구성했다.

켈리 역시 뉴욕 출신이지만 그의 예술 형성기에 프랑스에 체류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다. 극도로 추상화된 형태를 띠는 그의 유화작품에서는 붓질의 흔적을 찾을 수 없도록 칠 자국을 배제한 채로 만든 그림이다. 그래서 그의 페인팅은 회화와 평면 조각의 중간쯤의 위치에 놓이는 작품이란 평을 듣는다. 철저하게 기하학적이기도 않고 물론 재현적인 것도 아닌 형태의 1951년 작 <Cit )>와 1962년 작 <Red White>를 출품했다. 애초에 기계공학도였던 칼더와 달리 켈리는 처음 구상적 회화에서 출발해서 비대상적 회화로 나아갔는데 나중에 변형된 형태의 캔버스로 소위 '솔리드 칼라 필드'의 영역을 구축했다. 1950년대 미국미술의 상징인 색면추상회화가 더욱 견고한 형태를 취한 것이다.



Alexander Calder, Eighteen Numbered Black, 1953.

Ellsworth Kelly, Cite, 1951, painting, oil on wood, 143.5 x 179.7cm



Ellsworth Kelly, Red White, 1962 painting, oil on canvas, 203.5 x 229cm



Ellsworth Kelly, Spectrum I, 1953, painting, oil on canvas, 153.04 x 15cm

Pop Art

이들에 뒤이어 진정으로 미국미술을 상징한다는 팝아트의 작가들로서 로이 리히텐슈타인과 앤디워홀의 대표적인 그림들이 전시됐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1960년대 중반까지 전쟁이야기를 다루는 통속적인 대중만화의 컷을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캔버스에 옮기는 작업을 주로 했는데 이렇게 선과 색을 단순화시킨 그의 전형적인 작품 <Live Ammo (Tzing!)> (1962)과 '타이어' 하나를 크게 확대한 그림 <Tire>(1962)를 출품했다. 앤디 워홀은 유명 인사들의 사진을 이용해서 판화로 만들어오던 '명사 시리즈'에서 리즈와 재키의 초상화가 든 <Liz #6 [Early Colored Liz](1963)>와 <Jackie Triptych(1964)>를 포함한 몇 종류와 지명수배범의 얼굴 사진을 기반으로 만든 작품들을 출품했다. 그는 유화작품 위주의 회화분야에 실크스크린 같은 상업성 짙은 실용적 수단을 도입해 큰 대중적 성공을 거둔 작가로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의 획기적인 창안과 성공신화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은 현대미술계의 또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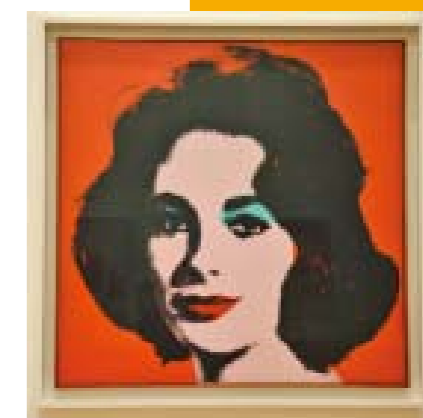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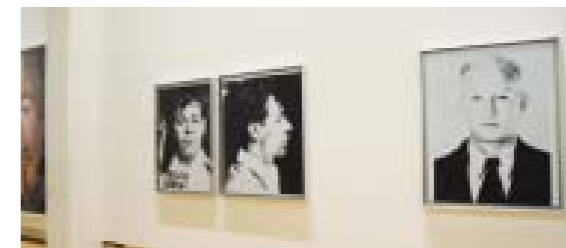
Live Ammo (Tzing!), 1962, oil on canvas, 176.5 x 146.05 cm



Roy Lichtenstein, Tire, 1962, oil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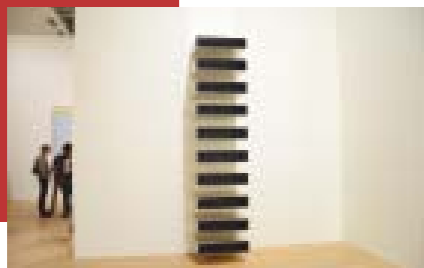


Andy Warhol, Two Jackies, 1964, Silkscreen ink on linen, 53 x 83.82



Andy Warhol, Liz #6 [Early Colored Liz],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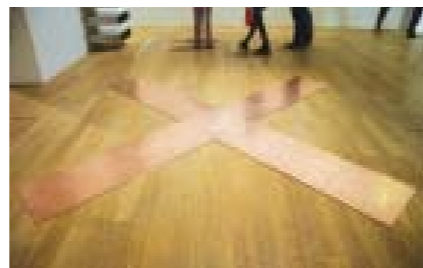
팝아트가 처음 등장해 오래지 않아 크게 대중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추상표현주의와는 달리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기호나 구상적 이미지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색채나 형태가 선명하고 뚜렷한 윤곽선을 가지고 있는 점,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속 소재들을 취하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술시장에서 상업화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앞서 추상표현주의의 지나친 주관주의와 관념적인 성격에 대한 반작용으로 팝아트가 대중성을 고려한 광고 이미지를 취한 것과는 또 다르게 미니멀리즘은 재료의 객관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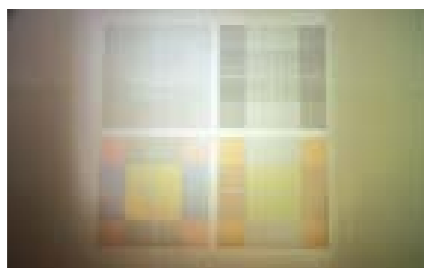
Donald Judd, *Untitled*,
1973 stainless steel and pain



Carl Andre, *13th PbFe Triangle*,
1987 lead and steel, 91 units



Carl Andre, *Parisite*,
1984 copper, 13 units



Sol LeWitt, *Wall Drawing 1 Drawing Series II 18 (A & B)*



Dan Flavin, *untitled (to dear, durable Sol from Stephen, Sonja, and D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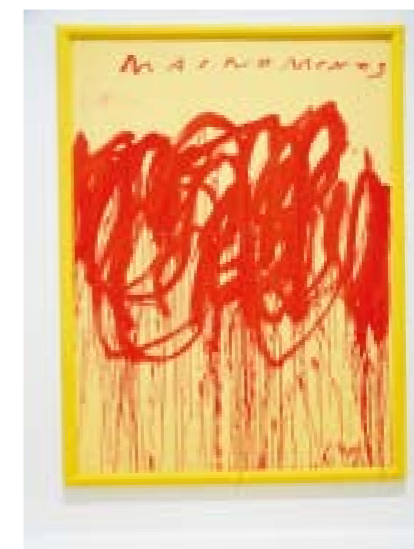
물질적 성질에 접근하는 전혀 다른 태도로 시작했다. 도널드 저드 같은 작가들은 비개인적 비표현적 견지에서 물체의 객관성과 단순성을 중요한 특징으로 했다. 하지만 쉽게 이해되는 팝아트와는 달리 개념미술적인 성격에 가까워져 대중은 오히려 난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아이러니다. 전시회는 계속해서 이 미니멀아트의 주요 멤버들인 칼 앙드레, 도널드 저드, 솔 르윗 등과 조명을 이용하여 심플한 설치를 하는 댄 플래빈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추상표현주의와 미니멀리즘의 경계를 넘어 독특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한 아그네스 마틴, 사이 톰블리 등의 작품들을 돌아보면 미국미술의 한 시대를 풍미한 양식으로서 추상이 지닌 힘과 영향력을 새삼 깨닫게 된다. 아그네스 마틴의 화면은 그리드 기반 위에 엄격한 줄무늬로 그려진 지극히 미묘한 그림으로서 정관과 시각적 명상을 유도한다. 톰블리는 미국 추상표현주의 교육 안에서 성장했지만 유럽의 문학과 신화에 영감을 받아 주제로 오버랩 시키는 작업을 했다. 그는 문학적 내용이나 또는 역사적인 서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피하면서 그림과 필기의 경계를 추구했다. 소용돌이치는 필치로 구성된 그의 추상표현주의적인 회화들은 시각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경험의 깊이와 복잡성을 제시하며 캔버스에 표식을 남기는 독자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캘리포니아 해안 풍경을 연상시키는 추상화로 유명한 리처드 디벤콘과 만화의 일러스트에 가까운 필획으로 알레고리적인 그림을 그리는 필립 거스통, 척 클로스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역시 초반에는 추상주의에서 출발했지만 한때 혹은 나중에 구상미술로 변화를 추구한 작가들이다. 디벤콘은 1950년대부터는 구상적인 표현을 하다가 1960년대 중반 다시 추상적인 색채와 평면으로 돌아가

다소 기하학적인 구성을 자기 예술의 독자적인 정체성으로 확고하게 뿌리내린 작가다. 필립 거스통은 1950년대 중반까지는 추상표현주의에 충실한 작품을 하다가 1970년대부터 붉은 색과 검은 색으로 단순화된 색조와 만화풍의 구상적인 화면으로 전환을 해 우의적인 내용을 그렸다. 추상을 포기한 그의 획기적인 전환은 비난을 사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린 시절 경험에 대한 자전적인 상징을 끝내 중단하지 않고 밀고나갔다.

샌프란시스코 모마는 모던아트와 컨템퍼러리 미술의 수집과 전시를 담당하는 미 서부의 유서 깊은 미술관으로서 이번 전시에서 작가들의 구성은 어떤 유파나 양식적 고려 없이 단지 독립적인 개성이 강한 작가들로 선별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술사적 맥락에서 가장 미국적인 특색을 드러낸 20세기 중후반 추상미술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작가들이다.



Cy Twombly, *Untitled (Bacchus 1st Version IV)*,
2004



Agnes Martin, *Falling Blue*,
1963 oil and graphite on lin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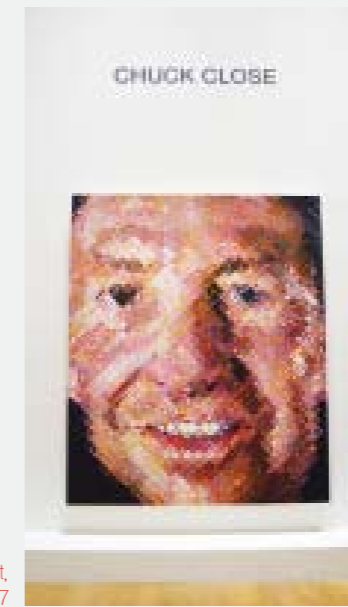
Philip Guston, *Evidence*, 1970 oil on canvas



Richard Diebenko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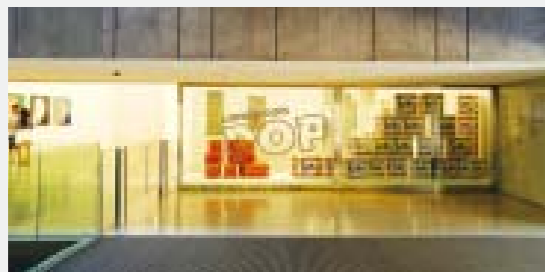


Chuck Close, *Robert*,
1996-1997



'루드비히 고즈 팝'전 (비엔나 MUMOK)

유럽에서 본 또 한 편의 미국미술전은 비엔나의 무목 미술관에서 열린 '루드비히 고즈 팝' 전시였다. 미국 팝아트가 유럽 관중에게 광범위하게 다가가기 시작한 것은 1964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와 1968년 제4회 카셀 도큐멘타 전시 이후라고 한다. 그런데 루드비히는 팝아트의 전설적인 주역들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1960년대 중반부터 수집하기 시작해서 현재 미국 밖에서 유럽 최대의 컬렉션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대표적인 작가들로서 바로 잰스퍼 존스와 라우센버그 같은 초기 선구자들은 물론이고 앤디워홀과 로이 리히텐슈타인에서부터 클레스 올덴버그, 로버트 인디애나, 제임스 로젠퀴스트 등 중요작가들을 망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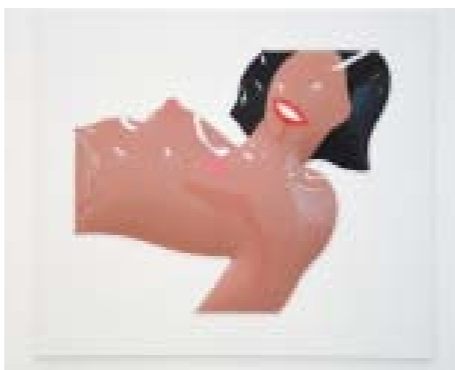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모두 100여점으로써 유럽 각국에 산재한 루드비히 컬렉션과 관련된 6개의 기관들로부터 가져온 것이었다. 전시의 첫머리에는 앤디 워홀의 브릴로 박스를 시대적 전환기의 상징적 작품으로 진열했다. 수많은 미학적 미술사적 논쟁을 유발시킨 현대미술의 획기적인 작품으로서 워홀의 이 세계 박스를 앞에 놓고 뒤이어 미국 팝아트의 전설적인 주역들을 배치시켰다. 잰스퍼 존스와 라우센버그 같은 선구자에서부터 팝아트의 전개과정은 물론 확장과 확산까지를 풍부한 예시들으로써 개관해주는 전시였다. 팝아트는 미국이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전례 없는 경기 호황과 산업의 발달 그리고 인구와 소득의 증가 시대를 맞으며 소비사회로 나아갈 때 미국사회의 현실과



Andy Warhol, 129 Die in Jet(Plane Crash), 1962



Andy Warhol, Campbell's



Tom Wesselmann, Great American Nude No. 74, 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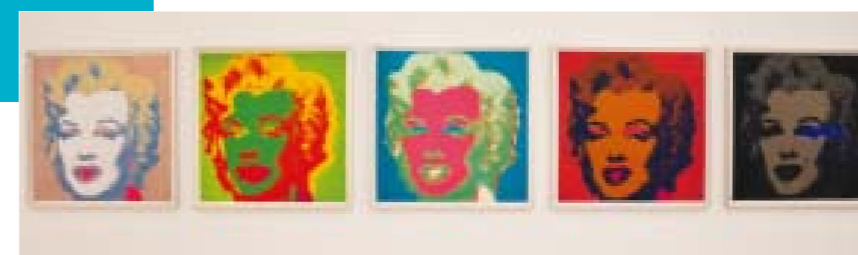


Andy Warhol, White Brillo Boxes, 1964.



Duane Hanson, Woman with a Purse, 1974

Andy Warhol,



일상의 단면을 반영한 예술이었다. 대중전달 매체의 발달, 영화 및 광고 산업의 발전, 자가용 자동차의 붐, 다른 한편으로 범죄와 대형 사고의 빈발 등 이런 모든 요소들이 팝아트의 주제와 소재로 반영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직간접적으로 암시되고 있었다. 팝아트의 매체와 방법 양식적 특징 속에도 이 시대 문화예술에 대한 대중적 감각에 어필하는 요소들이 작동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Robert Indiana, The Big Eight, 1961 Museum Ludwig



Robert Indiana,



Jasper Johns, 330, Target, 1967 - 1969, Augusta, GA, USA

이 전시를 주최한 무목(mumok: museum moderner kunst stiftung ludwig wien)은 이곳 오스트리아 빈에 1962년 처음 세워질 때부터 '20세기 미술관'으로 지어졌다. 컬렉션 역시 주로 20세기 전반 모더니즘 미술 위주로 소장한 곳이다. 하지만 현재는 21세기 컨템퍼러리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김영동

- 미술평론가
- 영남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 수료
- 영남대, 경북대 출강
- 매일신문사 편집미술부 차장 역임
- 現 대구문화재단 이사
- 2015 대구아트스퀘어-청년미술프로젝트 예술감독
- 저서 <근대의 아틀리에> 외

武蔵野



むさしの

무사시노 들녘을 오늘은 태우지 마시오.
푸릇푸릇한 젊은 남자도 나도 숨어 있으니.

무사시노를 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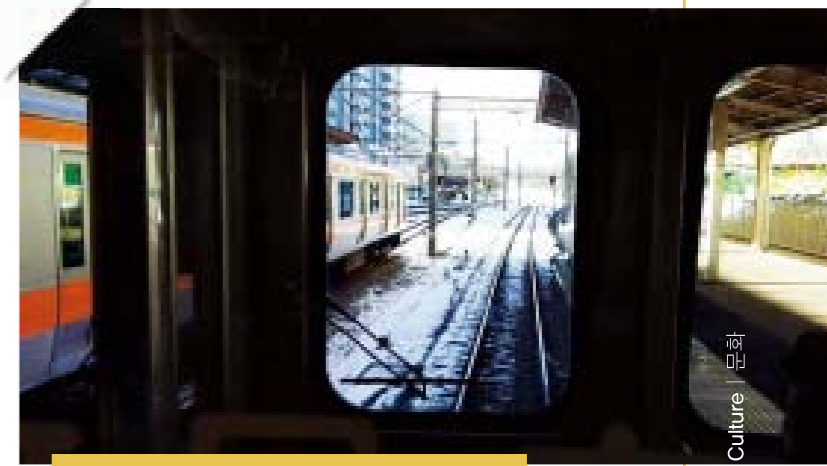
글·사진 고선윤

방학이면 나는 도쿄를 찾았고, 나를 보고자 하는 친구가 있을 때 내가 안내하는 도쿄는 뻘뻘했다. 시부야에서 쇼핑을 하고, 신주쿠 고층빌딩에서 야경을 즐겼다. 아사쿠사도 빼놓지 않았다. 사찰과 신사가 한자리에 있으며, 인사동 버금가는 가게들이 즐비하고 기모노를 입은 외국인들이 어깨를 스치며 다니는 모습에 일본 전통을 운운하면서 잘난 척하기 딱 좋은 곳이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는 우에노 공원을 걸었다. 덥거나 추울 때는 미술관으로 들어가 교양이 넘치는 여인을 연출하면서 앓을 자리를 기웃댔다.

친구가 온단다. 딱히 나를 보러 오는 건 아니지만 나랑 주말을 보낼 수 있을 거 같아서 설레었다. 같이 있어도 무겁지 않고 멀리 있어도 소홀하지 않는 사람이다. 조용한 삶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어떤 모임에서도 항상 중심에 있고, 그 가슴에는 주변을 다 녹일 그런 따뜻함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허락된 시간을 이리 저리 쪼개고 또 이렇게 잇고 저렇게 이으면서 호작질을 하다가 욕심이 과하면 하나도 얻을 수 없음을 잘 아는 나이인지라 과감하게 모든 것을 지우고 딱 한 곳을 선택했다. 그곳이 '무사시노'다.

딸아이가 무사시노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 합격 통지서를 받고 처음 찾아가는 날, 도쿄 어디쯤에 있는지 지도에서 찾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 도쿄도 다음에 '○○구'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도쿄시'라는 이상한 주소를 가진 이곳은 도쿄의 중심 신주쿠에서 전차로 1시간을 달리고, 내려서도 주야장천 걸어야 하는 그런 곳이었다. 큰 눈이 내린 다음날이었다. 딸아리와 나는 깃발을 든 역장이 호루라기를 부는 광경이 여전한 작은 역에 내려서 학교까지 걷기 시작했다. 역에서 학교까지는 좁은 상수도변 길이 이어졌다. 눈 속으로 다리가 푹푹 빠졌고, 얼음이 깔린 곳에서는 미끄러졌다. 툭 부딪힌 나무에서 눈덩이가 한바구니 떨어져 눈사람이 되기도 했다. '수험생'이라는 그 무거운 단어를 가진 긴 터널을 통과해서 날개를 단 자에게 된들 즐겁지 않겠는가. 이래도 '깁깁' 저래도 '깁깁거리며', 한참을 걸어서 학교에 도착했다. 두꺼운 코트 안에서는 땀이 축축하고 불쾌하지만은 않은 사람냄새가 폴폴 났다.

나와 무사시노의 만남은 이것이 처음이다. 아니 직접 발을 디딘 것이 처음이지만, 사실 구니키다 돗보(國木田獨歩, 1871~1908)의 길지 않은 산문 <무사시노>(1898년)를 통해서 조금 알고 있었다. '돗보; 홀로 걷다', 그 필명부터 씩씩하지 않는가! 일본 근대문학에서 자연주의의 선구자이며,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풍경을 그대로 묘사해서, 이른바 근대적 자아(내면)의 발견을 한 작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 작가들도 적지 않게 그를 알고 있었다. 시인 김억은 그의 간결한 작품이 마음을 끈다고 했고, 최서해는 돗보의 단편집을 애독했었다. 이광수는 잡지 <삼천리> 기자와의 대담 중, 애독하는



작품으로 톨스토이와 푸시킨의 러시아 작품들을 들먹인 다음 “일본 작품 중에는 소세키와 뫄보의 작품인데, 뫄보의 예술만은 늘 보고 싶은 것이다”라고 했단다.

‘무사시노를 산책하는 사람은 길을 헤매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 어디에서나 발길 닿는 대로 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수확물이 있다’로 뫄보의 글이 시작된다. 그리고 다음 글에서 잠시 눈을 멈춘다.

‘만약 자네가 길을 묻고 싶거든 밭에서 일을 하는 농부에게 물어라. 농부가 마흔 살 이상의 사람이라면 큰소리로 물어라. 놀라서 이쪽을 보고 큰소리로 대답해 줄 것이다.
만약 어린 처자라면 다가가서 살포시 물어라. 젊은 남자라면 모자를 벗고 예를 다해서 물어라. 의젓하게 대답해줄 것이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도쿄 근방에 사는 젊은이의 관습이다.
알려준 길을 가다보면 길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뉜다.
알려준 쪽 길이 너무 좁아서 이상하다고 생각되어도 그대로 가라.
갑자기 농가의 마당이 나올 것이다. 역시 이상하다고 놀라서는 안 된다. 그때 농가에서 물어라.
문을 나가면 바로 큰길이라고 투명하게 대답할 것이다.
농가의 문밖으로 나와 보면, 이것은 본 적이 있는 길이다.
“그래 이게 지름길이었구나!”하고 자네는 미소를 띠고.
그리고 비로소 가르쳐 준 길의 고마움을 알 것이다.’



〈무사시노〉에는 풍경만 그려져 있지 않다. 사람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풍경이 사람들의 무대에 불과한 것 또한 아니다. ‘밭 있는 곳에 반드시 사람이 살고, 사람이 사는 곳에 반드시 연애가 있다’는 그의

〈병상록〉 한 구절이 기억난다. 연애=사랑, 사랑이라면 희로애락이라는 말이 아니겠는가. 쿵닥쿵닥 설렘도 이별도 아픔도 사랑 안에 다 녹아있다.

뫄보는 첫 부인 노부코와 헤어지고 무사시노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들었다. 노부코는 전근대적 남성 중심의 윤리에서 벗어나 자신을 삶을 찾는 근대적 여성으로, 뫄보의 작품 속 여기저기에서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무사시노 들녘을 오늘은 태우지 마시오. 푸릇푸릇한 젊은 남자도 나도 숨어 있으니.”

이 시가를 담은 『이세모노가타리』는 일본 헤이안 시대(794~1192)의 대표적 작품이다. 자유분방한 남자의 이야기가 125개 이어지는데, 위의 시가는 그 중 하나에 등장한다.

옛날 한 남자가 남의 집 귀한 딸을 훔쳐서 무사시노 들녘으로 데리고 가자 이를 잡으려 사람들이 쫓아온다. 급기야 남자는 여자를 풀숲에 숨기고 혼자서 도망을 간다. 들녘을 헤매던 사람들이 “도둑을 잡아야한다”면서 소리치고 불을 놓으려 하니, 여자가 울면서 읊은 시가이다. 이 정도는 왜야 무사시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당시 도읍지 교토에서 멀리 떨어진 동쪽 나라 무사시노는 귀족 중심의 화려한 헤이안 시대의 가치관에서는 소외된 곳이었기에, 그래서 더 풋풋하게 살아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무사시노’가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강 도쿄의 서쪽 대학가를 지칭한다. 이와이 슌지 감독의 〈4월 이야기〉 영화 속 무사시노는 따뜻함, 그리고 한적함을 담고 있는 곳으로 기억된다. 여하튼 나는 소중한 친구의 도쿄방문을 환영하며, 함께 무사시노를 걸었다. 말없이 걸어도 심심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해가 땅에 똑 떨어질 때까지 걷고 또 걸었다. 꼭 그날 걸음 때문만은 아니지만 엄지 발톱이 하나 빠졌다. 지금 반쯤 올라온 발톱을 만지작거리면서 무사시노를 기억한다.

“죽는 그 순간 살아온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는데, 오늘의 그림이 크게 남을 것 같다”
는 말을 큰 선물로 받았다.



고선윤

- 백석예술대학교 외국어학부 겸임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어일문학 문학박사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
- 저서 《토끼가 새라고?》, 《헤이안 시대의 사랑가 풍류》, 《너만의 도쿄(2018)》 등 다수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 의미 찾기

글 · 자료 정찬호

확실히 필자가 청소년이었을 때와는 다르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다. 언제부터인지 크리스마스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평소와 똑같이 퇴근하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과연 '오늘이 크리스마스이브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곤 했다. 유럽에서 유학할 당시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가히 부러울 정도였다. 일단 크리스마스 방학이 3주가량이나 되었고, 마치 우리나라의 명절과도 같이 먼 곳에 흩어져 있던 가족이나 연인들이 한 곳에 모여 푸근하고 정겹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절기였다. 특히 한 달가량 계속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은 먹거리 볼거리가 넘쳐나서 흐뭇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한마디로 그 광장, 그 마을, 그 도시 전체가 하나의 잘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었다.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하고 있는 종합선물세트와도 같은 세 편의 영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세 편 다 유럽과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네 문화와는 많은 차이가 있기도 하겠지만, 원래 크리스마스가 서양에서 들어온 절기이고 보면 크리스마스 원산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먼저 플롯 중심으로 살펴보면, 영화 「크리스마스 스타」는 하나의 스토리가 전개되고, 영화 「로맨틱 홀리데이」는 두 개의 스토리가 평행적으로 전개되며, 영화 「러브 액츄얼리」는 다양한 스토리들이 전개되고 있다. 소재 측면에서 보면, 「크리스마스 스타」와 「러브 액츄얼리」는 모두 성탄극(nativity play)을 다루고 있는데, 전자는 스토리의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후자는 단지 하나의 모티브로서 다루고 있다.



영화 「크리스마스 스타」에서 주인공 폴 매든스(마틴 프리먼 분)는 영국 미들랜드 연극 아카데미 동창생인 여자 친구 제니퍼(애슐리 켄슨 분), 친구 고든 셰익스피어(제이슨 위킨스 분)와 함께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는 삼총사였다. 그 당시 뮤지컬 공연 중 잠시 무대 뒤에서 대화를 나눴다. 제니퍼가 “배우는 꼭두각시일 뿐, 컨셉 자체가 남의 것이야, 스스로 주체가 되기 위해선 감독이나 제작자를 희망해!”라고 하자 이에 매든스가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해!”라고 하니, 제니퍼와 셰익스피어는 동시에 “연기 안 되는 사람은 가르치고, 가르치는 게 안 되는 사람은 초등교사 한다고들 해!”라며 빈정대듯이 말했다.

미들랜드 연극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매든스는 세인트 버나셋 초등학교 교사로, 제니퍼는 할리우드로, 고든은 그 지역 최고 명문학교인 오크무어 학교 교사로 각각 진출하게 된다. 고든 셰익스피어가 오크무어 학교에서 성탄극을 발표하자 지역신문 평론가로부터 호평을 받아 별 다섯 개를 받은 반면, 폴 매든스가 연출한 성탄극은 호평을 받아 마이너스 별 두 개를 받았다. 매든스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친구 제니퍼가 할리우드로 떠났을 뿐만 아니라, 성탄극 공연마저 호평을 받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크리스마스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은 심경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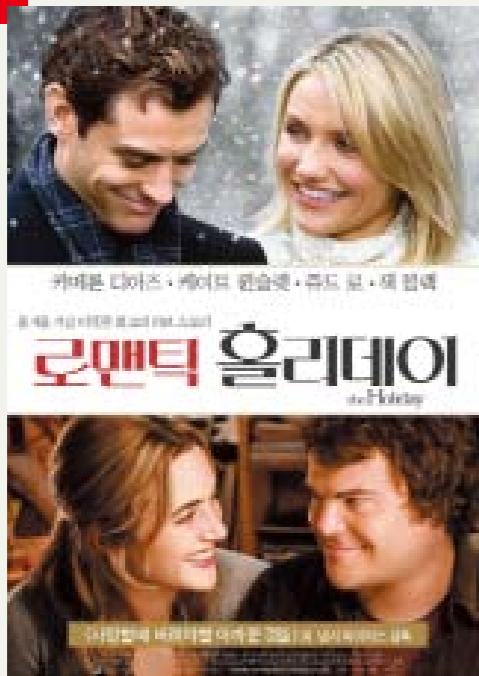


5년이 지난 후 세인트 버나셋 학교 교장이 일방적으로 매든스에게 성탄극 연출을 맡기면서, 도와줄 조교로 자신의 조카 파피를 붙여주는데, 그는 한마디로 천방지축이어서 방해만 될 따름이었다. 동료 교사와 학생들조차 성탄극에 대한 별 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

매든스가 성탄 공연을 어쩔 수 없이 다시 맡아 준비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친구 셰익스피어에게 기죽기 싫어서 세인트 버나셋 학교 성탄극 공연을 보러 할리우드에서 온다는 거짓말을 했던 것이 소문으로 퍼졌다. 학교 아이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 언론과 시장까지 나서서 이를 대환영하는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면서 매든스의 고민은 점점 깊어만 간다. 매든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기 위해 파피의 조언에 따라 도움을 청하고 자 할리우드로 갔다. 힘들게 제니퍼와 마주치게 됐으나 제니퍼는 기대와는 달리 총괄제작자 사무실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휴가를 내고 영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조차도 되지 않는 말단 직원이었다. 아무 소득 없이 귀국하게 된 매든스가 의기소침한 가운데 성탄극을 준비했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막을 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법! 어린 시절 마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현실이었던 것처럼...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온 마을 주민들은 어린 자녀들의 열연에 감동하게 되고, 전혀 실현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할리우드 손님들의 등장으로 그 감동은 절정에 이르게 된다. 제니퍼와 매든스는 재회의 감동에 휩싸이게 되고, 또한 부모자녀 간의 소원했던 감정들이 크리스마스 성탄극을 통해 공감과 화합의 도가니 속으로 녹아들면서 영화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영화 「로맨틱 홀리데이」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점에 두 여주인공의 이야기가 각각 영국과 미국에서 평행선을 달리며 박진감 있게 진행된다. 영국 런던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전원의 예쁜 오두막집에 살면서 신문사에서 인기 웨딩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아이리스(케이트 윈슬렛 분)는 순수하고 착한 심성을 지닌 아름다운 여성이다. 그러나 그녀는 연애에 있어서 소위 밀당을 모르는 '일방통행식 사랑'으로 직장 내 한 남자동료를 전폭적으로 좋아했으나, 사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그 남자친구는 그녀와 신문사 전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여자와 약혼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엄청난 충격을 받고 쓸쓸히 자신의 전원주택으로 돌아온 그녀는 너무나 괴로워서 자신도 모르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가스를 마시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란다. 바로 이때 '휴익스체인지 휴가' 신청 메일이 도착한다.

한편 미국 L.A.에서 각광받는 영화예고편 제작회사 사장인 아만다(카메론 디아즈 분)는 뛰어난 재능과 넉넉한 재력을 지닌 성공한 여성이다.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그녀에게도 단 한 가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아이리스의 매력적인 오빠 그레이엄(जू드 로 분)이 동생이 있는 줄 알고 집으로 불쑥 찾아온다. 첫눈에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같이 휴가기간을 보내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헤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서로 간에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이어간다.

L.A.로 건너간 아이리스는 영화음악 작곡가인 마일스(잭 블랙 분)를 만나게 된다. 아이리스는 넉넉한 마음과 뛰어난 재능 그리고 따뜻한 유머감각을 지닌 이 남성과 만나게 되면서, 서로의 감정을 서서히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어 서로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 아만다 역시 송년의 밤까지 영국에 머무르기로 하였으며, 또한 아이리스와 함께 송년의 밤을 보내기 위해 영국으로 함께 온 마일스까지 합류하여 다 같이 파티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끝맺게 된다.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연애문제인 것이다. 아만다의 집에 얹혀사는 남자친구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다가 들켜놓고서 오히려 아만다의 일중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핑계를 대자 아만다는 그 남자친구를 내쫓아버린다. 그녀는 이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고자 크리스마스를 바로 앞두고 여태까지 가져보지 못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여행을 감행하게 되고, 구글 검색창에서 '혼자 보내는 휴가'라는 사이트에서 우연히 아이리스의 집을 검색하여 메일을 보내게 된다. 이렇게 해서 6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두 여주인공은 2주 동안의 크리스마스 휴가기간을 서로 집을 바꿔서 완전히 다른 생활공간에서 생활하기로 작정한다. 각각 L.A.와 영국으로 날아가 아이리스와 아만다, 둘 다 지금까지와는 너무나 다른 생활공간에서 지내게 되는데, 드넓은 저택에 만족한 아이리스와는 달리 도시에서 많이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에 처하게 된 아만다는 곧바로 돌아갈 궁리부터 하게 된다.

MERRY CHRISTMAS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 「러브 액츄얼리」는 크리스마스를 향하여 달려가는 시간의 빠른 흐름 속에서 다양한 관계들이 서로 얽힌 각양각색의 스토리들을 탄생시킨다. 영화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봉하면서 시작한다. 또한 마지막 장면 역시 공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반갑게 만나는 장면으로 화면을 가득 채우며 여운을 남긴다. 사랑은 형이상학적인 개념 속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사랑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다(Love actually is all around.)'라고 영화에서 말하고 있다.

상처한 새아버지(리암 니슨 분)와 어린 아들(토마스 생스터 분), 한물간 노년의 친방지축 록스타(빌 나이 분)와 그와 함께 거의 한평생을 보낸 매니저(그레고르 피셔 분), 젊은 멋쟁이 총각 영국 수상(휴 그랜트 분)과 수상 관저의 말괄량이 식음료 담당 아가씨(마틴 맥커친 분), 방황하는 중년의 남편(앨런 릭먼 분)과 가정을 지키려고 속으로 눈물을 삼키는 부인(엠마 톰슨 분), 영국 작가(콜린 퍼스 분)와 언어가 통하지 않는 포르투갈 도우미 아가씨(루시아 모니즈 분), 섹시한 이상형 여인을 찾아 무모하게 미국행을 감행하는 영국 청년(크리스 마셜 분)과 그를 만나 함께 영국으로 오는 무모한 미국 아가씨, 지적장애 오빠로 인해 자신의 이상형 남성과 마음껏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여성(로라 리니 분), 친구의 애인(키이라 나이틀리 분)을 짝사랑하면서도 한 마디도 표현하지 못하고 결혼식 들러리로 축하해주는 청년(앤드류 링컨 분), 그리고 세간의 선입견과는 달리 성인영화배우(남우 : 마틴 프리먼 분)들 간의 순수한 사랑고백 등 실로 무수한 러브스토리들이 등장한다.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짝사랑, 우정, 국경을 초월한 사랑,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등 플라토닉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통상 혼 혼한 크리스마스 영화와는 거리가 먼 에피소드들, 즉 다소 맥락 없는 에로틱 러브, 성인영화배우 간의 사랑, 심지어 불륜이라는 소재까지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오히려 바로 여기에 작가와 감독의 메시지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사랑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으며, 성속(聖俗)의 구별 없이 어떤 관계 속에도 있을 수 있다고 웅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곳에서 속된 세상으로, 그것도 비천한 말구유로 탄생한 아기 예수라는 본래 크리스마스의 소재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주제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영화의 또 하나의 묘미는 각양각색의 러브스토리들이 마치 '원숭이 영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로 이어지는 말 잇기 놀이와도 같이 서로 간에 면밀히 이어져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영국 수상은 자신의 관저 식음료 담당 아가씨와 사랑에 빠지게 되어 우여곡절 끝에 크리스마スイ브에 그녀의 집을 직접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녀의 집을 문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던 그녀 바로 옆집에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은 자기 회사 사장과 불륜관계를 가진 여성이며, 그 회사 사장이 바로 수상의 여동생 남편이다. 또 다른 예로서 자기 친구의 신부를 짝사랑했던 청년은 그 결혼식 피로연에서 신부의 어떤 친구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바로 그 친구가 지적장애 오빠로 인해 자신의 이상형 남성과 마음껏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비운의 여성이다.^^

한편 까메오로 깜짝 출연하여 영화의 재미와 극적인 반전을 더해주는 배우가 있는데, 「미스터 빈」으로 알려진 배우 로완 앳킨슨이다. 새아버지의 아들 샘이 짝사랑하던 소녀에게 고백하기 위해 비행장 출국장의 탑승구역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하는 바로 그 때 약간의 혼란을 야기하면서 샘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탑승객으로 등장해 영화에 소소한 재미를 더하고 있다.

이 세 편의 주옥같은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된다. 진정한 행복과 꿈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법한 그런 순간들이 크리스마스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감동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지금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잃어버린

동심의 세계에서 품었던 꿈과 소망, 청년시절 찾고자 갈망했던 진정한 자아, 그리고 평생 동안 추구해야 할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용기 있게 직면해보는 의미 있는 행복한 시간들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정찬호

- 동산Wee센터 팀장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철학석사, 문학박사
-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상담심리 전공)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 역량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
- 법무부 법사랑위원 대구경북지역연합회 운영위원
- 수련감독 상담전문가(한국청소년상담학회)



Time Travel

군산으로 떠나는 특별한 시간여행

상처를 아로새겨 역사가 되다

글·사진 권다현

Gun San

옛 군산세관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무수한 햇살은 때로 깊은 상처도 아물게 하고 역사란 이름의 흉터를 남긴다. 일제의 참혹한 탄압과 수탈이 활취고 간 군산은 그와 같은 흉터가 곳곳에 남아 있다. 그러나 흉터는 상처를 이겨냈다는 의미일 터. 그들의 역사를 걷는다는 것은 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선 이들만이 지닌 든든한 힘을 발견하는 여정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군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쌀이 모이는 '군산창'과 이를 보호하는 '군산진'이 설치될 만큼 경제·군사적 요충지였다. 1899년 군산항이 개항될 때만 해도 국제무역항으로서의 황금빛 미래를 꿈꾸었지만, 일제강점기란 민족적 비극을 만나면서 식민지 수탈의 중심지로 왜곡된 성장을 겪게 된다. 근대 군산은 채만식의 소설 <탁류>에도 표현된 것처럼, 전국 곳곳에서 몰락한 농민과 지식인들이 일말의 희망을 찾아 모여들었으나 결국 악독한 차별 속에 생존권마저 빼앗기는 비참한 식민지 그 자체였다.

해방로에 자리한 근대역사박물관에선 이 같은 도시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3층 근대생활관에는 1,200만평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던 구마모토농장의 토지목록을 비롯해 창씨개명 호적원부 등 당시 일본의 수탈과 탄압을 짐작해볼 수 있는 자료들이 다수 전시되어 있다. 또 군산 최고의 변화가었던 영동상가와 도시빈민들이 산등성이에 만든 초가집 형태의 주거지인 토막집, 일본의 오사카와 시모노세키 등으로 수백만석의 쌀이 실려 나갔던 내항의 풍경 등을 그대로 복원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박물관 로비에는 대륙진출의 전략적인 목적에 의해 건설된 어청도 등대도 자리하고 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주변에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정책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박물관 우측에는 대한제국 시기에 건설된 옛 군산세관 본관이 자리하고 있는데, 조선총독부의 관세행정과 경제수탈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옛 서울역사, 한국은행 본관과 함께 현존하는 서양 고전주의 근대건축물로서의 가치 또한 높다. 좌측으로는 현재 근대미술관과 근대건축관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는 옛 일본 18은행과 조선은행 군산지점이 이어진다. 일본 나가사키에 본사를 두고 있는 18은행은 1907년 군산에 일곱 번째 지점을 설립한다. 이들은 일본인들에게 쌀 이자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조선인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통해 막대한 농토를 갈취하는데 도움을 준다.



▲ 근대역사박물관



◀◀ 근대미술관



근대미술관 내부에는 당시 사용했던 대형금고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금고가 채워지기까지 우리 민족은 험벗고 굶주려야만 했다”는 글귀가 가슴 아프다. 조선총독부의 직속금융기관인 조선은행은 <탁류>에서도 사기꾼이자 호색한인 고태수가 다니는 은행으로 묘사되며 일제의 자본수탈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등장한다. 이들 역시 일본 상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며 군산 내 상권을 장악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군산의 다양한 근대 건축물들을 모형으로 전시한 공간이지만 당시의 기둥이나 지붕 골조를 그대로 남겨둔 일본 건축물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된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걸어서 10여분 거리에 자리한 원도심 일대에도 일제강점기의 다양한 건축물들이 남아있다. 당시 이곳은 일제의 자본수탈을 통해 부를 축적한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영화 <장군의 아들>, <타짜> 등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히로쓰 가옥**은 군산시내에서 대규모 포목점을 운영하던 히로쓰 게이샤브로가 지은 주택으로 전해진다. 화려한 일본식 정원까지 갖춘 대형 목조주택으로 조선인들의 눈물과 피땀 위에 지어 올린 화려함이 슅�스스하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은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도 근처에 자리하고 있다. 개항 후 군산에 정착한 일본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유입된 종교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교토에서 제작했다는 일본식 종각도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근대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종각 바로 옆에 자리한 평화소녀상과 참사비다. 군산

▼ 히로쓰 가옥



▼ 동국사



▼ 위안부 기림비



시민들과 일본인들이 직접 성금을 모아 건립했다는 위안부 기림비에는 다녀간 이들의 위로와 참회가 담긴 색색깔 팔찌가 가득하고, 일제의 만행에 대한 사과를 담은 비석 앞에선 작으나마 인간과 양심에 대한 희망을 엿본다.

군산 근대문화유산마을엔 무겁고 서글픈 역사의 흔적만 가득한 건 아니다. 90년대를 지나온 이들이라면 누구나 마음 한편 파스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 등장했던 **초원사진관**도 바로 이곳 거리에 남아 있다. 크리스마스가 너무 짧아서 더욱 애틋한 것처럼 죽음을 담담하게 준비하던 남자주인공은 안타깝게도 긴 시간이 필요한 사랑에 빠진다. 이들의 짧은 사랑이 무수한 사진들과



▼ 이성당



▲ 초원사진관

함께 고스란히 남아있는 초원사진관은 무려 2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여전히 풋풋한 설렘으로 기억되고 있다. 군산을 대표하는 빵집인 이성당도 원도심에 자리하고 있다. 1920년대 일본인이 '이즈모야'라는 화과자점으로 영업했던 것을 해방 후에 이어받은 **이성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으로도 유명하다. 오랜 세월 군산 사람들의 달콤한 여유가 되어주었던 단팥빵은 여행자들에게도 푸짐하고 그윽한 군산의 맛으로 남을 것이다.



권다현

- 현 (사)한국여행작가협회 홍보이사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졸업
- 저서 '내일로 기차로' '나 홀로 진짜 여행' '만원으로 떠나는 초저가 당일치기' 등 다수
- 2014 한국관광의 별 단행본 부문 대상(문화부장관상)
- 현재 동아일보 '대한민국 구석구석' 칼럼 연재
- 현재 MKBS1 라디오 <라디오 중심 김승채입니다> '권다현의 테마여행' 진행



웃는얼굴아트센터 특별기획

김성수 초대전 사람을 만나다 만들다가, 그리다가

글 · 자료 고재령(웃는얼굴아트센터 전시담당)

사람을 만나다



꽃을 바라보다
나무에 채색/3x3x2.7m/2018

전시장을 들어서자 김성수 작가의 신작 <꽃을 바라보다>(2018)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 동안 김 작가의 작품을 통해 만나볼 수 있었던 생명력이 충만한 '꽃밭' 연작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모란, 엉겅퀴, 민들레, 이름 모를 야생화까지 피어있는 모습도 제각기 달랐다. 꽃밭은 금방이라도 향기를 품어 낼 것 같았고 보는 이들에게 미소를 짓게 했다. 그 꽃밭 안에 한 남자가 있었다. 거칠고 투박하게 표현된 남자는 무심코 피어난 들꽃 속에 앉아 감탄을 자아내는 듯했다. 꽃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조명의 각도에 따라 달라 보였다. 소리 소문 없이 피어난 꽃과의 반가운 만남, 또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은 관람자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웃는얼굴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열렸던 김성수 초대전 [사람을 만나다: 만들다가, 그리다가]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김성수 작가의 작업 주제는 어린 시절의 아픔과 상처에 관한 치유에서부터 날고 싶은 욕망과 꿈, 꽃밭에서 노니는 상상의 무대까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그가 만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수백 점의 인형으로 그려내듯 조각해낸 작품 <사람을 만나다>(2018) 전시에서도 그대로 표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250여명의 인물을 작품으로 발표했다. '언제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냈을까?' 감탄이 절로 나는 작품이었다. 수많은 인물 작품은 김성수 작가가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아내와 딸과 아들, 매일 만나는 경비아저씨, 동창들, 주변의 예술가들까지 모두 담았다. 작가 자신의 모습도 그 속에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사람을 만나다(인물시리즈)
나무에 채색/가변크기/ 2018 설치 중 일부

이번 전시에서는 역사적인 인물들도 보였다. 명성황후, 유관순, 도마 안중근, 김구, 노무현 전대통령까지 다양하다. 자신과 가족부터 주변인,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인물까지 섬세한 듯 투박하고, 무심한 듯 다정한, 자유로운 표현이 하나 하나, 작품 속에 작가의 손길로 고스란히 묻어나 있다. 크기는 작지만 그들의 내면과 정신세계가 반영된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이 묻어나 있는 작품들이었다. 250여점이 넘는 인물들은 그 숫자만으로도 관람자의 시선을 압도했다.

맞은편 전시장의 벽면 책장에는 <사람을 만나다(에스키스)>(2010~2018) 100여점이 다양한 에스키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동안 재현한 작품부터 앞으로 구현할 작품들을 보는 즐거움이 가득했다. 나무와 돌에 조각한 작품부터 흙을 다듬어 구워낸 작품까지 다양했다. 돌을 조각할 때도 그는 나무를 조각하는 방식으로 돌을 다듬었다. 작업실 주변을 산책하다가 발견한 돌에 새긴 사람의 얼굴은 돌의 질감이 주는 원시적 생명력이 크게 느껴졌다.

몇 개의 선만으로도 생명력을 연상시킨 20세기초 루마니아의 조각가 콘스탄틴 브랑쿠시의 <잠자는 뮤즈>(1910) 작품처럼 이미 그는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작가였다.

사람을 만나다(자연석)
90x30x25cm/2018 설치 중 일부



이렇듯 간소하고 소박한 조각기법을 자신의 독자적인 조형 언어로 정립해왔던 김성수 작가의 작품세계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모던한 조각의 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래 전 꼭두에서 시작했던 한국의 얼굴 <사람을 만나다>(2018)의 작품들에 표현하였으며, 작가 개인과 주변의 이야기에서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자리이기도 했다. 거대한 크기의 꽃밭부터 에스키스까지... 작가의 치열한 실험 정신을 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을 만나다(에스키스)
530x300x35cm/2010~2018



2018 '희망달서 큰 잔치'

세대와 계층을 이어가는 문화축제

글, 자료 김은주(문화정책실장)

Festivals



거리 뮤지컬



줄타기 권원태

민요단 이춘희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문화축제인 2018 '희망달서 큰 잔치'가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웃는 얼굴아트센터에서 풍성하게 개최되었다. 올해 '희망달서 큰 잔치'는 '활기찬 생활문화'를 추구하는 달서구 문화정책에 맞춰 에코아트 및 창의예술체험, 발명체험한마당, 열린미술체험마당 등 지역예술인 참여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전야제인 국악공연 '굿(Good)보러가자'(12일)와 달서구 개청 30주년 축하공연 '아이넷TV 스타쇼' 및 인디밴드 공연(13일)에 이어 뮤지컬 거리공연, '다공다감 복지한마당', '다문화 어울림제'(14일) 등 3일간 각각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해, 그야말로 세대와 계층을 넘어서서 함께 하는 구민잔치로 펼쳐졌다.

재단 직원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문화체육관광과의 지원으로 '희망달서 큰 잔치'가 무사히 마무리 되었음을 감사드린다. 더불어 세대와 계층의 구별 없이 함께 소통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었던 2018 '희망달서 큰 잔치'가 지역민들에게 의미 있는 문화축제로 기억되길 바란다.



버블쇼

12일 오후 7시 30분 청룡홀에서 전야제인 'Good(굿)보러 가자'가 정통 국악과 퓨전 국악으로 축제의 막을 올렸고, 소문 난 공연인 만큼 많은 관객들이 몰려와 객석을 가득 채우고도 넘쳐났다. 오정해의 정겨운 사회와 노래, 명무 국수호의 입춤, 명창 이춘희의 민요, 이윤석의 고성오광대, 권원태의 줄타기 등 명인들이 펼치는 국악무대와 함께 고석진(퍼커션)과 탄즈 EDM의 퓨전국악이 무대와 객석의 흥을 돋웠다.

둘째 날 13일부터는 아트센터 이곳저곳에서 큰 잔치가 펼쳐졌다.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최한 발명 퀴즈왕 선발대회(청룡홀)와 신나는 발명체험한마당을 비롯해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에코아트·창의예술 체험'

및 이색자전거 체험과 퍼레이드, 2만년을 이어온 선사시대, LED캐릭터 등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등 다채로운 체험과 함께 매직 버블쇼, 인디밴드 공연, 예술인과 구민이 함께하는 즉흥연주, 청동마임과 키다리 피에로 퍼포먼스, 프리마켓 등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해 남녀노소 모두 축제를 즐기고 함께 참여하는 의미를 나누었다.

또한 오후 7시부터는 달서구민의 날 기념행사로 '구민상 시상식'과 프리소울의 축하공연에 이어 메인공연인 달서구 개청 30주년 축하공연 '아이넷 TV 스타쇼'가 야외특설무대에서 마련돼, 세대와 계층을 넘어서서 이웃과 함께 소통하는 문화축제로 진행되었다. 아이넷 TV 스타쇼에는 현숙, 한혜진, 강진 등 대중 가수들이 대거 등장해, 큰 잔치의 흥을 맘껏 북돋웠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오전 10시 30분 복지의 날 기념식(와룡홀)을 시작으로 다공다감 복지한마당 체험과 장기자랑, 프리마켓, 다문화 퍼레이드, 세계문화엑스포, 다문화가족 장기자랑 등 다문화 어울림제와 폐막파티(대구충파) 등 하루 종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득했다.



추억과 낭만이 있는 7080 낭만콘서트

글. 사진 허정무(웃는얼굴아트센터 공연담당)

깊어가는 가을, 지역민의 낭만과 감성을 깨우는 '7080낭만콘서트'가 지난 11월16일 청룡홀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청룡홀 리모델링 중이었던 지난해에는 '릴레이 포크 콘서트' 타이틀로 소극장(와룡홀)에서 3일간 공연을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훌륭한 사운드와 멋진 조명이 돋보이는 청룡홀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추억과 낭만이 있는 7080문화 ...

1970년대와 80년대에 20대를 보낸 현재의 중장년층인 7080세대(대략 1950년~1970년생)는 암울한 정치사회적인 분위기에서 통기타와 장발로 대변되는 청년문화를 형성하며 낭만을 찾으며 청년기를 보냈다. '낭만'으로 대표되는 7080문화는 공연, 방송계에서 끊임없이 리메이크되고 있으며 중장년층의 젊은 시절을 추억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런 문화의 흐름에 따라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도 중장년층 위한 '7080 낭만콘서트'를 해마다 대표공연으로 기획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 포크 음악, 블루스 록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이정선', 포크계의 아이유 '김희진', 가창력의 전설, 라이브의 황제 '박강성'이 출연하여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선보였다.



7080 문화의 매력 ...

그렇다고 '7080 문화'가 40~50대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그 시대를 산 사람이 아니라도, 한 번쯤 들어본 명곡들로 가득한 7080세대의 음악들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매력이 있다. 최근 박스오피스에서 역주행을 기록한 영화<보헤미안 랍소디>는 록밴드 '퀸(QUEEN)'의 삶과 노래를 그린 영화로 퀸의 음악을 듣고 자란 40대~50대뿐만 아니라 10~20대까지도 스크린 앞으로 불러들이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7080세대의 이야기가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이유는 '뉴트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뉴트로'는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로 복고를 새롭게 해석하고 즐기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향수를 자극함과 동시에 신선함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7080의 문화를 잘 설명한다.



이정선, 김희진, 박강성과 떠나는 추억여행 ...

데뷔 45주년을 맞은 '이정선'의 통기타 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공연은 '산사람', '살다보면 언젠가는' 등의 히트곡으로 7080의 시대로 관객들을 이끌었다. 관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 그 시절을 함께 추억하는 시간을 가진 이정선의 무대는 감미로우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여자 포크 싱어상을 수상한 '김희진'이 '사랑해', '영원한 나의 사랑'의 히트곡을 비롯해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 '포크송 메들리'까지 추억이 가득한 노래로 향수를 자극하며 관객의 마음을 적시었다. 마지막 무대를 꾸민 '박강성'은 '문 밖에 있는 그대' 등 애절하면서도 가슴 시린 멜로디의 곡으로 공연을 시작해, 화려하고 신나는 곡들로 분위기를 바꾸면서 관객과 함께 뛰며 공연 끝까지 힘이 넘치는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7080 낭만콘서트'를 통해 보여준 뜨거운 무대는 다음 공연에 대한 기대를 키우기에 충분했다. 12월에 송년 특별기획으로 열리는 '사랑&동행 음악회'에도 최성수를 비롯해 신효범, 박강성 등 7080세대의 가수들이 출연 예정인데, 티켓 오픈 90분 만에 전석 매진되는 등 그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8 대구생활문화제

달서생활문화센터 '작은 음악회'를 마치고

글 · 자료 이재근(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지원팀장)

현대사회에서 '문화'가 갖는 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문화는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것만으로 정의하기엔 너무 어렵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보다는 사람의 보는 눈과 생각을 바꾸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결국 행복을 찾아가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싶다. 카오스의 시대,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에게 문화는 따뜻한 위안이자 대안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싶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특징 중 하나가 '생활문화의 확대' 또는 '문화의 일상화'라고 볼 수 있다. 소득 증대와 평균수명 증가 등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활문화의 확대라는 필연적 결과를 가져오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생각되는 문화예술을 지역주민 누구나 자발적이며,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생활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 생각된다. 이제 수동적인 시민들은 문화적 체험 및 향유기회 확대와 욕구 증대로 문화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기능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순수 아마추어 지역민들의 예술 활동인 「달서생활문화센터 작은 음악회」가 10월 4일 오후 3시, 달서구 두류아울렛 지하분수대광장에서 열려 소개하고자 한다. 달서구 문화·예술 동아리가 함께 참여하여 만든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최,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주관,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재단의 후원으로 2018년 대구생활문화제 중 한 분야였다.

'바빠서 취미를 즐길 시간이 없다', '배우려면 어렵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하지만 생활문화예술은 거창한 시작이 아닌 삶 속에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일상의 놀이이며,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작은 음악회' 참가자 분들이 몸소 보여주었다. 특히, 리허설을 거쳐 본 공연인 작은 음악회 행사를 경험한 동호회원들의 긴장된 모습과 만족스러운 반응을 살펴 보면서 평소 문화예술 동호회원들 스스로 이뤄낸 노력의 결과를 보여줄 기회에 얼마나 목말라했는지 알 수 있었다.



참여 팀은 모두 7개 팀으로, 달서생활문화센터에서 동아리 모임을 통해 매주 실력을 닦아온 6개 팀과 대구문화재단을 통해 신청한 1팀이 주인공이었다. 작은 음악회는 블루오카리나의 공연을 시작으로 드림하모니카, 8.10트리플사랑, CUSCO팬플룻 중주단, 달서아코디언, 은파오카리나, 목요커의 7080 통기타까지 팀마다 다채로운 색깔을 나타내며 공연을 마무리했다.

'관객들이 없거나 호응이 없어 실망하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다. 작은 공연장 주변을 오고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관객이 되어 환호와 격려를 보내주었다. 문화를 보고 즐기는 사람들의 인식도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야말로 연주자도 관객도 진정 '놀 줄' 아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번 대구생활문화제 '작은 음악회'에 참가한 동호회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역 동호회의 경우, 은퇴를 하거나 중년이 지나서 참여하는 회원들이 대부분인데요. 처음엔 열정만 가지고 시작해, 음악적 기초 부족으로 악보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 연습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달서생활문화센터에서 선생님의 지도로 함께 배우고 이렇게 공연까지 하게 되어 꿈만 같아요"

공연을 마친 오카리나 회원들의 감흥에 이어 아코디언 회원들도 "사실 음악이나 연주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여러 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군요. 어릴 적 꿈을 다시 한 번 꾸는 것 같아 연주가 끝나도 여전히 설렌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태풍 공레이로 모든 야회행사가 취소되는 아픔을 겪는 과정에서 두류역사 내 공연장은 날씨 걱정도 없이 작은 음악회 행사를 무사히 마치도록 땀 흘리며 노력한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웃는얼굴아트센터 수강생들의 축제 예술아카데미 <나도예술가>

글 · 사진 김경영
(웃는얼굴아트센터 아카데미담당)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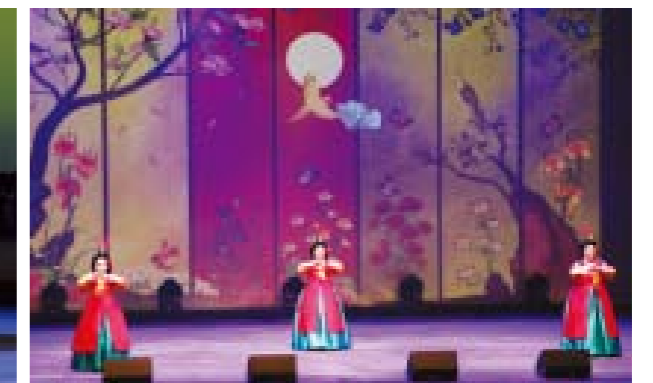
모든 것이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한 해 동안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맺는 <나도 예술가>가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었다.

예술아카데미 수강생들의 축제인 <나도 예술가> 행사는 11월 8일 시작해 13일까지 열린 전시회(갤러리)를 비롯해 10일(토) 청룡홀에서 열린 발표회까지 총 6일간 진행되었다. 일상 속 문화예술을 가까이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한자리에 모인 예술아카데미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 쌓아올린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어느덧 열세 번째 행사를 맞이했다.



이번 <나도 예술가> 전시회는 미술, 공예, 사진 등 20개 강좌에서 22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발표회는 국악, 실용음악, 무용 등 13개 강좌에서 120여명이 팀별로 무대에 올라 그간 예술아카데미를 통해 갈고 닦았던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취미로 시작한 문화예술 활동이 어느새 전시회와 발표회를 준비할 정도로 실력을 갖추었으며, 나아가 지인들과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로 소통할 만큼 성장한 수강생들의 결실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한 해 동안 쌓아올린 수강생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빛난 <나도 예술가>. 참여자들의 얼굴에서 어느 때보다도 충만한 성취감을 엿볼 수 있어서 감회가 남달랐다. 앞으로도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그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웃는얼굴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가 되길 바래본다.





달서가족문화센터 '가족친화·결혼테마 특별 프로그램'

특별해! 좋았어? 기억해!

글·사진 박영빈(달서가족문화센터 운영지원팀장)

유난히도 단풍이 고왔던 지난 가을, 달서가족문화센터에서는 '가족', '부부', '결혼', '사춘기', '대화'의 각 주제 아래 특강 영화관람,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민과 나누었다. 9월부터 11월까지 3달 동안 진행되었던 가족 가치에 중점을 둔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족'이 특별해!

어머니, 아버지, 동생, 누나, 형...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 구석이 찢히거나 울컥 할 때가 있다. 때로는 서로에게 서운함을 느끼다가도 아무 일 없듯이 화해하고 기쁠 때에는 나보다 더 기뻐 해 주고 슬플 때에는 그 누구보다 위로를 아끼지 않는 그런 존재가 '가족'이고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편'이 아닐까? 달서가족문화센터에서는 바로 그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가족 친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아하, 그랬구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가족심리상담 프로그램이다. 가족 구성원별 성격 경향을 분석, 사례별로 전문가의 맞춤 상담을 통해 가족 간 이해를 돕고 갈등을 예방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토요일 오전에 한차례 씩 진행된 '아하, 그랬구나!'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중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가족 관계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부부愛 토크'

부부 생활을 주제로 한 특강이다. 10월에는 김지윤소장(좋은연애연구소)이 '그 남자, 그 여자의 소통법'을 주제로 강의를 했으며, 11월에는 이호선센터장(한국 노인상담센터)이 '칭찬해, 응원해, 사랑해'를 주제로 가족관계 문제에 대한 전문가다운 해설을 펼쳤다.

'대화가 필요해'는 가족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면서 가족들이 처한 갈등 상황을 짚어보고 전문가가 이에 대한 대처법을 해설한다. 포레스트 검프(Forrest Gump, 1994)와 마빈의 방(Marvin's Room, 1996), 행복을 찾아서(The Pursuit of Happiness, 2006)로 각각의 영화를 10분씩 정도 감상 후 주제별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보는 활동 시간을 가졌다.

'1318 사춘기 놀이터'는 DJ 김모선의 진행으로 펼친 토크 콘서트이다. 즉석에서 사연을 받아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층 빨라진 사춘기 자녀들의 이해를 돕고 자녀들 또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봄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사연 소개 중간에 청소년 동아리팀의 댄스, 악기, 노래 감상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결혼'도 중요해

'딴~딴다단, 딴~딴다단~♪♪♪' 누구나 결혼의 로망을 꿈꾸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소망한다. 톨스토이는 '사랑은 서로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이다'라고 했으며, 셰익스피어는 '사랑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족 구성의 첫 단추인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고자 달서가족문화센터에서 결혼 테마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미팅For웨딩'

미혼남녀, 부부 등 커플뿐 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 영화와 공연 관람 프로그램, 로맨스 장르 영화 상영에 이어 11월, 부부 성악가가 '사랑'에 대한 레퍼토리 곡을 선사함으로써 솔로들에게 짝을 찾는 운명적 만남의 장소를, 연인과 부부에게는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추억의 장소를 제공했다.

'알콩달콩 결혼일기'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신혼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미래 설계를 돕고자

했다. 결혼에 대한 이해, 신혼부부 재테크, 서로의 언어 이해하기, 비엔나커피 만들기 총 4주차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신혼부부 재테크 수업에 대한 참여 인원이 비교적 많아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야!'

빼빼로 플라워 박스 만들기 1일 특강으로 연인, 아내, 남편 등을 위한 선물을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서로의 모습을 사진에 담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 무사히 마쳤다.

또한 12월 19일에 열리는 크리스마스 맞이 가족콘서트는 유명 뮤지컬 넘버와 마술쇼로 진행하며, 이어서 27일에는 윤홍균 박사(정신의학전문)를 초청, '가족의 자존감'을 주제로 한 특강을 개최한다.



Art Academy
 웃는얼굴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
예술인문특강

강좌명	강사/일정/수강료
김영동의 특별한 미술관 기행 올해의 유럽미술관 특별전	김영동 미술평론가 12.7~1.4(금/매주) 10시/3만원(5회)
여행작가 임택의 마을버스 세계를 가다	임택 여행작가 12.12~12.26(수/매주) 14시/2만원(3회)
건축과 미술로 떠나는 세계도시여행 '고대문명을 찾아서'	서희주 베영리 전시공간 색디렉터 1.10~1.24(목/매주) 10시/2만원(3회)
김은경의 영화의 심장소리 영화로 떠나는 세계여행II	김은경 시인, 심리상담사 1.16~2.20(수/매주) 14시/3만원(5회)
피아니스트 최훈락의 클래식음악과 미디어매체	최훈락 피아니스트 1.25~2.22(금/매주) 11시/3만원(5회)

문의 | 예술아카데미 584-8721~2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크리스마스 특집
 가족뮤지컬

Christmas Carol

스크루지와 크리스마스캐롤



2018.12.25(화) 11:00, 14:00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관람료 전석 10,000원 문의 웃는얼굴아트센터 (www.dscticket) 584-8719

산타들이 펼치는 크리스마스 캐롤음악회

2018.12.25(화) 공연 30분전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로비

| 공연단체 | 브라보 브라스 앙상블